
碩士學位請求論文

海女노래 辭說에 드러난
海女の 經濟活動과 海女노래 傳承方案

指導教授 朴 龍 炯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梁 順 子

1997年 8月

海女노래 辭說에 드러난
海女の 經濟活動과 海女노래 傳承方案

指導教授 朴 龍 垞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 出 者 梁 順 子

梁順子の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 查 委 員

審 查 委 員

金 恒 元
하 以 元
朴 龍 垞



<抄錄>

海女노래 辭說에 드러난
海女の 經濟活動과 海女노래 傳承方案

梁 順 子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朴 龍 炯

본 연구는 ‘해녀노래’ 辭說에 드러난 해녀의 경제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해녀의 위치를 재조명하며, 해민정신을 계승하고 ‘해녀노래’를 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녀노래’에 따른 춤사위 지도 자료를 구안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해녀의 위치, 해녀노래 전승 양상, 그리고 이미 채록되어 자료집에 실려있는 해녀 작업의 題材를 ‘잠수작업, 해산물채취, 잠수목적’으로 분류하여 제주 해녀의 경제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성산읍 온평리 해녀들과 면담을 통하여 ‘해녀노래’ 구연 상황과 물질수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해녀노래’ 전승 방안으로 ‘해녀노래’에 따른 춤사위를 구안하여 도식화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해녀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 말 현재 제주도에 6,068명의 해녀가 있으나, 1970년 23,930명에 비하면 25%에 불과하다. 또한 1994년 해녀 구성비에서는 50세 이상의 해녀가 64%를 차지하고 국민학교 졸업자가 85%로 학력이 높을수록 해녀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해녀의 고

* 본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령화 현상과 해녀수의 감소는 바로 ‘해녀노래’ 전승위기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해녀수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政策樹立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해녀노래’는 이 세상에서 제주도에만 전해지면서 ‘맷돌·방아노래’와 함께 제주도 민요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해녀노래’는 노를 젓는 동작과 밀착된 채 구연됨으로써 작업에 이바지하는 기능이 뚜렷하나 오늘날 노를 젓는 작업과 함께 불리는 ‘해녀노래’는 해녀작업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연적 전승이 있을 수 없게 되어 ‘해녀노래’의 구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해녀노래’ 辭說은 ① 해녀작업 출발의 노래(16편), ② 해녀작업의 노래(38편), ③ 해녀출가의 노래(64편), ④ 해녀출가 생활의 노래(19편), ⑤ 사랑노래(37편), ⑥ 해녀들의 여정(25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辭說의 題材에는 해녀들이 신명을 걸고 생업에 임하는 숙연함과 불굴의 의지가 담겨져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해녀노래’를 통해 해민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넷째, ‘해녀노래’ 辭說 38편에는 잠수작업에 온 힘을 쏟는 해녀들의 숭고한 삶의 모습과 근로정신이 드러나며, 특히 1983년에는 제주도의 수출고 중 72.5%를 생산하였고, 1995년에는 28%를 생산하여 제주도 지역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군 해녀들 자신들이 가계비의 80% 이상을 물질 수입으로 충당함으로써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다섯째, 본래의 ‘해녀노래’는 이미 해녀작업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연적 전승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해녀노래’의 전승자는 50대 이상의 해녀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녀노래’에 대한 녹화·녹음·채보·辭說채록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해민정신을 계승하고 ‘해녀노래’를 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 방안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해녀 노젓는 소리’와 ‘멀치 후리는 소리’에 대한 악보와 辭說 내용에 따른 춤사위를 작업의 소재로 엮어 도식화하였으나, ‘해녀노래’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교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目 次

I. 서 論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3
II. 제주도 해녀의 위치	5
1. 해녀의 현황	5
2. 해녀의 경제활동	8
III. 해녀노래 전승양상	12
1. 해녀노래의 배경과 분포	15
2. 해녀노래의 전승과 전승자	16
3. 해녀노래의 기능과 제재	17
IV. 해녀노래 사설제재 분석	20
1. 잠수작업	20
2. 해산물 채취	24
3. 잠수목적	34
V. 해녀노래 구연 방안	44
1. 해녀 노젓는 소리	46
2. 멸치 후리는 소리	48
3. 춤사위 지도의 실제	49
VI. 요약과 결론	54
參考文獻	57
英文抄錄	59

表 目 次

〈표1〉 제주도 어업 종사자 현황	6
〈표2〉 제주도의 연도별 감귤 생산량	7
〈표3〉 잠수현황	7
〈표4〉 제주도 패류 채취 잠수	9
〈표5〉 제주도 수산물 어종별 생산량	10
〈표6〉 제주도의 주요 어종 생산량 비교	11
〈표7〉 제주도 노동요 분류	13
〈표8〉 제주도 노동요의 사설 내용 분석	14
〈표9〉 해녀노래 제재 분류	19
〈표10〉 제주 해녀의 월별 1일 평균 작업 회수 비교	23
〈표11〉 해녀 노래 사설에 드러난 해산물 빈도수	26
〈표12〉 전국·제주의 소득을 비교	36
〈표13-1〉 주요 어종별 생산 추이	38
〈표13-2〉 연도별 해조류 생산량	39
〈표14〉 제주도의 소라 생산 추이	40
〈표15〉 제주도 해녀 어획물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42
〈표16〉 해녀의 건의 및 애로사항	43

그림 目 次

〈그림 1〉 테왁과 망시리	27
〈그림 2〉 물안경	28
〈그림 3〉 빗창	28
〈그림 4〉 호미	29
〈그림 5〉 굴쟁이	30
〈그림 6〉 질구덕	30
〈그림 7〉 질구덕과 소지품	31
〈그림 8〉 소중이와 각 명칭	32
〈그림 9〉 고무옷	33
〈그림 10〉 오리발	33
〈그림 11〉 해녀 노젓는 소리	46
〈그림 12〉 멸치 후리는 소리	48
〈그림 13〉 해녀놀이에 따른 춤사위 지도	5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민요는 개인의 감정보다도 공동체적인 삶의 현장과 그 감정에 부합된다. 개인의 창작에 의해 불러졌다 하더라도 구비 전승된다는 민요의 또 다른 성격 때문에 그 특수한 부분은 걸러지고 생활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음의 배합으로 이루어진다.¹⁾ 이것은 민요가 구전문학의 한 장르로서 개인작이면서도 공동작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민요들이 전해들은 내용에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더 보태거나 고치면서 전승시킨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자유로운 전승과정을 통해 민요는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지방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향토성을 반영하면서 유형이나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²⁾ 이처럼 민요는 각 지역의 사람 삶의 모습과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지역성이 짙다. 그러므로 제주 민요를 조사 분석하면 과거 제주인들의 삶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

제주 민요 辭說 한 편 한 편에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 즉 辭說에는 제주의 자연·역사·사회·관습·생업·경제·신앙과 제주민의 心意 현상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제주 민요의 모습은 곧 제주의 모습이며, 제주 민요의 특색은 바로 제주의 특색이 된다. 따라서 제주 민요 中 ‘해녀노래’가 제주 해녀³⁾에 의해서 불린다는 사실 자체가 제주의 빛깔이 된다.

오늘날 지역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경쟁의 시대에 勇·知·仁의 정신을 겸비한 해민정신(Seamanship)을 제주의 시대정신으로 삼자는 논의도 있다.⁴⁾

이처럼 해민정신이 잘 깃들여 있는 ‘해녀노래’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김경숙(1986), 「민요의 인식과 개념」, 집문당, pp. 20-21.

2) 전경옥(1987), 「민요 연구의 현황과 분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116.

3) 해녀를 潛嫂·潛女라고도 하며, 수산업법상으로는 裸潛漁業者라고도 한다.

4) 宋成大(1996), 「濟州人の 海民精神」, 도서출판 제주문화, p. 439.

첫째, ‘해녀노래’를 부르는 해녀는 세계의 관심이 쏠릴 만큼 이름이 났고, 해녀는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녀 작업 주체는 여자들이어서 女多의 상징이며, 그리고 작업장소는 제일공동어장⁵⁾으로 그 작업방법이 裸潛이기 때문이다. 셋째, 해녀들은 해녀작업을 하기 위해 오갈 때 탄 배의 노를 저으며 ‘해녀노래’를 부른다. 넷째, 해녀들은 단지 제주 바다에서만 물질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대의 바다에까지 그 행동 반경이 뻗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주도 해녀의 강인한 생활의지는 제주도 여성의 상징으로서 국내외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녀들의 생활개척 정신은 제주도민을 근검·검소한 생활로 이끌어 왔으며, 제주도 地域經濟에도 크게 寄與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에서는 해녀들을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인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해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으며, 제주도 당국이나 수협에서도 해녀의 권익문제와 해녀수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1994년 현재 제주도의 해녀 수는 6,068명으로⁶⁾ 1970년의 23,930명에 비하면 25%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50대 이상의 해녀가 64%를 차지한다. 또한 1983년에는 제주도의 수출고 중 72.5%를 생산하였고, 1995년에는 28.0%를 생산하여 제주도 지역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계비의 80% 이상을 물질 수입으로 충당함으로써 어촌에서도 절대적 위치에서 가장의 역할을 해 오던 해녀들이 1974년 이래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녀의 고령화 현상은 바로 ‘해녀노래’의 전승 위기와 직결된다. 아직도 50대 이상의 해녀들 중에는 본래의 역동적인 ‘해녀노래’를 부를 줄 안다. 그러나 일과 노래가 떨어져 나간 이 시점에서 자연적 조건에서는 ‘해녀노래’를 들을 수 없다. 따라서 ‘해녀노래’를 들으려면 일부러 꾸며 부르도록 하는 인위적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녀노래’에 대한 녹화·채보·辭說채록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승 대책으로 학교현장에서 본래의 ‘해녀노래’를 지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 개발도 시급한 실정이

5) 해녀들이 작업하는 어장을 뜻하며, ‘나잠어장’ 또는 ‘해녀어장’이라고 한다.

6) 제주도(1996), 「수산현황」, p. 28.

다.

이에 본 연구는 ‘해녀노래’ 辭說에 드러난 해녀의 경제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해녀의 위치를 재조명하며, ‘해녀노래’를 전승하기 위하여 ‘해녀노래’에 따른 춤사위 지도 자료를 구안 적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제주 해녀의 생활양식과 존재양상을 파악하여 제주 해녀의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의 위치를 재조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녀들은 당당한 여성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껴 후계자 양성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해녀노래’에 따른 춤사위를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은 ‘해녀노래’를 쉽고 재미있게 익혀 ‘해녀노래’를 즐겨 부르게 됨은 물론 해녀들의 근검·절약 정신이 생활화되어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게 될것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는 ‘해녀노래’ 辭說에 드러난 해녀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첫째, 제주도 해녀현황을 개관하여 해녀의 감소 원인을 구체적으로 구명하며, 둘째, ‘해녀노래’ 전승 양상을 고찰하여 ‘해녀노래’ 辭說을 분류하고, 셋째, ‘해녀노래’ 辭說 제재 분석을 통하여 해녀의 가정경제·지역경제에의 기여도와 해녀의 작업실태를 밝히고, 넷째, ‘해녀노래’ 악보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춤사위를 도식화하여 ‘해녀노래’의 구연 방안을論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이미 채록되어 자료집에 실려 있는 노래 중에 제주 해녀들에 의해 불렸던 ‘해녀노래’를 연구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수산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해녀의 경제활동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였고, 성산읍 온평리 어촌계를 방문하여 해녀들과 면담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⁷⁾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해녀노래’ 199편 중 해녀작업의 노래 38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7) 성산읍 온평리 상군 해녀들과의 면담은 해녀의 조수입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둘째, ‘해녀노래’라고 표제에다 한 것은 이제까지 저절로 젖어 왔든 청각적인데서 비롯된 것이고, 본문에는 잠수, 해녀라고 호칭하였다.

셋째, 해녀의 경제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농수산부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면서 제주도 수산현황 자료를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넷째, 해녀의 가계비 지출에 대한 조사는 성산읍 온평리 상군 해녀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해녀의 조수입이 갖는 한계가 있다.

Ⅱ. 제주도 해녀의 위치

1. 해녀의 현황

이 지구상에 해녀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의 경우는 수천에 불과하고 우리 나라에는 1995年末 현재 1만 여명의 해녀가 있으며, 그 중에서 57%가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다.⁸⁾

그러나 제주도 해녀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고, 실제 조사에 의해 파악하기도 어렵다. 다만 수협에 등록된 어촌계원 중에서 여계원만을 통계한 것이 수협이나 제주도의 해녀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이며⁹⁾ 제주도 어업 종사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말 현재 제주도에 6,068명의 해녀가 있다. 이 숫자는 제주도 어업종사자 8,968명 중 67%를 해녀가 차지하고 있다.

해녀수가 가장 많았던 1970년의 해녀 수는 23,930명으로 제주도 여자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6%였다. 그러나 1971년에는 41%가 감소한 14,143명으로 여자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3%이다.

이처럼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의식개혁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표 2>에서처럼 감귤재배 면적과 성과면적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량 급증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1970년에 들어서면서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감귤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현상을 가져오게 된다.¹⁰⁾ 이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감귤소득 향상에 따른 생활수준과 교육기회의 확대 등은 해녀를 겸업으로 생활해 오던 농어촌에 변화를 가져와 1971년을 기점으로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며

8) 1996년 수산현황에 의하면 1994年末 현재 6,068명의 해녀가 활동하였으나, 1997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1995년 어업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4年末 현재 제주도 해녀는 5,886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9) 1994년 4월 제주도 도청 수산과 자체 조사 자료를 보면 패류채취 잠수수가 6,534명으로 나타나 있다.

10) 제주도(1983), 『제주도지』, 제주도, pp. 90~93.

해녀 연령 구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表 3>참조).

〈표 1〉 제주도 어업 종사자 현황

(단위: 人, %)

연 도	제 주도인구A	어업종사자B	A / B(%)	해 녀	B / C(%)
1965	326,406	30,149	9.2	23,081	76
1966	336,694	31,149	9.4	24,268	76
1967	346,816	34,029	9.8	23,979	70
1968	358,282	34,640	9.7	21,122	61
1969	370,105	35,392	9.6	19,805	56
1970	365,522	37,107	10.2	23,930	64
1971	373,198	24,447	6.6	14,143	57
1972	380,926	23,437	6.2	14,457	61
1973	390,450	20,632	5.3	12,787	62
1974	408,246	14,613	3.6	8,402	57
1975	412,021	20,572	5.0	8,402	55
1976	420,830	16,492	3.9	8,017	48
1977	431,897	17,497	4.1	8,434	48
1978	443,708	18,887	4.3	9,774	51
1979	456,988	17,618	3.9	8,850	50
1980	462,755	12,216	2.6	7,804	72
1981	467,876	12,192	2.6	7,131	58
1982	473,967	10,054	2.4	6,907	60
1983	477,861	11,496	2.4	7,885	58
1984	482,031	11,347	2.4	6,648	60
1985	489,458	11,320	2.3	7,649	58
1986	495,968	11,215	2.3	6,637	67
1987	502,534	10,950	2.1	6,313	59
1988	508,922	10,505	2.0	5,992	57
1989	516,946	10,373	2.0	5,951	57
1990	515,000	9,660	1.8	6,827	70
1991	522,000	9,774	1.8	6,815	70
1992	506,000	9,613	1.9	6,846	71
1993	511,000	9,267	1.8	6,135	66
1994	514,000	8,968	1.7	6,068	67

資料: 「제주도 수산현황」

註: 1983년까지의 통계는 「탐라문화」 제 5호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해녀조사 연구: '1. 제주도의 어업 종사자'에서 일부 재작성.

〈표 2〉 제주도의 연도별 감귤 생산량

(단위: ha, m/t)

연 도	면 적	성 과 면 적	생 산 량
1953	16.8	18.0	6.3
1958	57.3	25.0	2667
1963	380.5	110.6	494.0
1968	1,645.2	316.0	3,548.6
1973	8,408.8	4,668.0	26,231.0
1978	12,089.48	11,006.02	125,950.0

資料: 濟州道, 『濟州道誌』, 1982, p. 93.

〈표 3〉 해녀현황

('94. 12. 31 現在)

區 分 \ 年 度 別		'70	'80	'90	'94	年 平 均 增 加 率
해 녀 수(名)		14,143	7,804	6,068	6,608	△3.46%
年 齡 構 成	30歲未滿	31.3	9.8	4.3	0.6	△11.5%
	30~49歲	54.9	60.7	44.2	35.3	△1.82%
	50歲以上	13.8	29.5	51.5	64.1	6.6%

資料: 『수산현황』, p. 35.

<표 3>에서 보면 1970년대에는 30세 미만과 30-49세 연령층 해녀가 86%를 차지하고 있지만, 1994년 해녀 구성비에서는 36%에 불과한 반면 50세 이상의 해녀가 6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표 4>에서 보면 패류 채취 해녀 중에서 20세 미만의 해녀는 한 명도 없고,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더구나 85%의 해녀가 국민학교 졸업자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해녀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2. 해녀의 경제활동

제주도의 수산물 어획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종은 제1공동어장에서 해녀들이 채취하는 패류와 해조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년전까지만 하여도 3월에서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은 월평균 출잠일수가 18일로 1개월 중 약 절반 이상을 해녀작업에 임하지만 10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의 5개월간의 월평균 출잠일수는 8일이었다.¹¹⁾

그러나 1970년경부터 합성고무로 된 잠수복이 해녀들에게 보급됨에 따라 파도가 거칠어서 작업을 못하거나 또는 금채기간과 산란기를 제외하고는 연중작업이 가능하여 작업일수가 길어지게 되었다.¹²⁾

그리고 해녀의 1일 출어시간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¹³⁾ 해녀의 1일 순작업시간은 2시간 19분이고 월총작업 시간은 38시간(10일 작업)이었다. 그러나 고무 잠수복 착용이후부터는 순작업 시간이 3시간으로 그리고 총작업 시간도 75시간(15일 작업)으로 길어지면서 어획고는 <표 5>에서 처럼 증가하게 되지만 해녀의 직업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녀들이 고무잠수복과 오리발 착용으로 깊은 수압에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압에서 오는 두통현상과 피부병, 그리고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위장병 등은 해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 되었다.¹⁴⁾

11) 이경남(1968), “제주도 해녀의 노동생산성 실태” 「제주도」, 제34호, p. 136.

12) 이기욱(1984), “도서와 도서민:마라도”,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도연구회, p. 170.

13) 이경남(1968), 앞의논문, p. 137.

14) 성산읍 온평리 해녀들은 진통제나 위장약은 물론 영양제 주사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두통이 심하다고 하였다.

〈표 4〉 제주도 패류 채취 해녀의 수

구 분	6,534						
시군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295 (4.5%)	557 (8.5%)		3,452 (52.8%)		2,230 (34.2%)	
수협별	제주시	서귀포	한림	추자도	성산포	모슬포	
	2,502 (38.3%)	1,059 (16.2%)	1,114 (17.0%)	131 (2.0%)	998 (15.3%)	730 (11.2%)	
연령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0 (0%)	39 (0.6%)	712 (10.9%)	1,591 (24.3%)	2,438 (37.3%)	1,526 (23.4%)	228 (3.5%)
조업 능력별	상 군		중 군		하 군		
	2,351 (36.0%) 수심 13m이상 잠수		2,513 (38.5%) 수심 8m이상 잠수		1,670 (25.5%) 수심 8m이하 잠수		
연령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상 군	0	14	429	881	852	173	2
중 군	0	19	228	514	1,097	641	14
하 군	0	6	55	196	489	712	212
학력별	국졸(무학포함)		중 졸		고 졸		대 졸
	5,555 (85.0%)		859 (13.2%)		119 (1.8%)		1

資料: 도청 수산과 자체조사, 1994.

〈표 5〉 제주도 수산물의 어종별 생산량

(단위: m/t)

연도별	계	어 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1979	38,389	10,520	124	2,977	41	24,727
1980	38,172	17,331	135	1,959	134	18,613
1981	35,753	11,637	218	3,162	475	20,261
1982	29,135	12,527	232	4,039	475	11,862
1983	36,175	12,632	270	5,604	817	16,852
1995	55,199	35,445	898	4,690	1,257	12,909

資料: 농수산부, 「수산통계 연보」, 1984, 1995年.

〈표 5〉에서 수산업 생산량을 어종별로 보면 제1공동어장에서 어획되는 해조류¹⁵⁾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종별 어획고를 보면 1983년 의 총어획고는 36,175 m/t인데 이 가운데서 어선을 사용하여 어획한 어류는 12,632 m/t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65%의 어획고는 제1종공동어장에서 해녀에 의해 채취되는 어종이 차지하고 있다. 해녀에 의해 채취되는 어획고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어종은 해조류가 46.5%이며 연체동물은 15.5%로서 해조류 다음으로 많은 어종이다. 1983년 해조류 생산량은 16,852m/t으로 수산업 전 생산량의 47%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12,909m/t을 생산하여 24%로 점차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1종공동어장에서 주요 어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뚝가사리, 톳 등의 생산량은 여전히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表 6>참조).

15) 톳, 우뚝가사리, 도박, 말, 가사리 등.

〈표 6〉 제주도의 주요 어종 생산량 비교

(생산량: m/t, %)

연도별	전 국 (A)				제 주 (B)							
	소라	전복	돔	우뚝 가사리	소라	$\frac{B}{A}$	전복	$\frac{B}{A}$	돔	$\frac{B}{A}$	우뚝 가사리	$\frac{B}{A}$
1979	4,382	458	12,932	7,671	2,650	60.5	64	14.0	4,679	36.2	2,038	26.6
1980	3,985	540	15,853	7,941	1,477	37.1	62	11.5	5,370	33.9	1,329	16.6
1981	4,497	558	13,743	7,178	2,218	49.3	128	22.9	3,382	24.6	2,289	31.9
1982	7,052	453	19,849	7,366	2,792	39.6	80	17.7	6,225	31.4	2,264	30.7
1983	5,787	333	15,335	7,354	3,570	61.7	142	42.6	5,043	32.9	3,562	48.4
1995	8,834	199	6,179	7,798	2,768	31.3	44	22.1	3,414	55.3	7,477	95.9

資料: 농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4, 1995年.

〈표 6〉에서 보면 소라 생산량은 1979년에 전국 총생산량의 60%에 달하는 2,650m/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1983년에는 3,570m/t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61.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는 2,768m/t을 생산하여 31.3%에 머물렀으나, 이 중에서 2,408m/t의 수출실적을 올려 해녀의 소득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1983년에는 제주도의 수출고 중 72.5%를 생산하였고, 1995년에는 28.0%를 생산하여 제주 지역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Ⅲ. 해녀노래 전승 양상

제주도 민요에는 여성의 사상이나 감정이 반영된 여성 노동요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 노동요는 辭說이 풍부하고 양과 질에 있어서도 빼어나 문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은데, 제주도 노동요를 분류하면 <표 7>과 같다.¹⁶⁾

<표 7>에서 보면 제주도의 노동요는 30여종에 이르며, 그 가운데는 세계에 유래 없는 ‘해녀노래’가 전승되는데,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테왁’을 가슴에 얹고 해엄처 나가면서 부르기도 하지만, 해녀들이 힘차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로 본격적인 ‘해녀노래’가 전승되는 곳은 제주도뿐이다.

‘해녀노래’를 현지에서는 ‘해녀 뱃노래’ · ‘해녀질 소리’ · ‘해녀질 흐는 소리’ · ‘좁녀 소리’ · ‘좁수질 흐는 소리’ 등으로 부르며, ‘좁녀’는 ‘潛女’, ‘좁수’는 ‘潛嫂’로 불리는 것은 노동요 같은 본원적인 노래는 고정된 謠名이 있을 수 없고, 노래하는 상황을 요약하는 말로서 조사자와 체보자 사이에 뜻이 소통되는 표현이 곧 민요 이름이 되기 때문이다.¹⁷⁾

이와 같은 민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요의 辭說을 분류하는 관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민요의 辭說을 분류할 때에 노동요의 경우는 기능과 내용, 어디에 기준 하느냐에 따라 꼭 같은 민요의 각편이라도 그 소속이 아주 달라지는데, 대체로 민요의 辭說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¹⁸⁾

첫째는 노동과 관련된 辭說이고, 둘째는 노래하는 사람의 심정을 드러내는 辭說이다. ‘타작노래’ 처럼 일이 거칠고 여러 사람의 행동 통일이 필요한 작업을 하며 부르는 辭說은 노동과 밀착되어서 주로 노동하는 실태를 노래한다. 그리고 ‘맷돌 · 방아노래’ 처럼 일이 거칠지 않고 몇 사람만이 단조롭게 일함으로써 행동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에 따르는 민요의 辭說은 노동과 밀착되지 않고, 대부분 노래하는 사람의 심정을 표현한다.

‘해녀노래’의 辭說 내용은 노동실태와 일상적 정감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데, 제주도 辭說 내용 분석은 <표 8>과 같다.

16) 金榮敦(1983), 「濟州道民謠研究」, 조약돌, p. 25.

17) 위의책, p. 72.

18) 위의책, pp. 27~28.

〈표 7〉 제주도 노동요 분류

謠別	謠種	現地의謠名	口演者	口演場所	口演地域	作業傳承
農業謠	파비질 노래 밭가는 노래 흙 덩이 바수는 노래 밭 밟는 노래 김 매는 노래 타 작 노래 보리 훑는 노래 마소모는 노래	파비질 노래 밭 가는 소리 흙 병에 두드리는 소리·곰베질 소리 밭 불리는 소리 김질 매는 소리·사디(사데) 마당질 소리·도깨질 소리 보리 훑트는 소리 므쉬 므는 소리	男 男共 女 共 共 共 共	밭 밭 밭 밭 마당·밭 마당 길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 ○ △ △ ○ △ × ○
	맷돌-방아노래 연자매 노래	ㄱ랫 놀랫·ㄱ래ㄱ는 소리 방엿놀래·남 방엿 소리 물방에(물ㄱ래) ㄱ는 소리	女 共	집안 연자맷간	全 全	× ×
漁業謠	해녀 노래 배 노래 멧목젓는 노래 멸치후리는 노래	해녀(질) 소리·잠수(질)소리 배젓는 소리·배젓는 소리 더우(대위·대배) 젓는 소리 멜 후리는 소리·멜 후림 소리	女 男 共 共	바다 바다 바다 바다	海 海 海特 海特	○ ○ △ △
伐採謠	나무에는 소리 나무켜는 소리 나무쪼개는 소리 나무내리는 소리 물베는 소리	낭 끈치는 소리 낭 싸는 소리·툽질소리 낭 깨는 소리·낭 깨는 도치질 소리 낭 꺾어 내리우는 소리·술기소리 출 비는 소리·출 비는 흥애기· 흥애기	男 男 男 男 共	수풀 집안 마당 수풀·길 물 밭	全 全 全 全 全	△ △ △ × △
冠綱謠	양태 노래 탕건 노래 망건 노래	양태 못는 소리·양태 줄는 소리 탕근 못는소리·탕근 줄는 소리 맹긴(망근) 못는 소리	女 女 女	집안 집안 집안	特 特 特	△ × ×
役謠	방앗줄 굴리는 노래 토불미 노래 디딤불이 노래 뚝뚝불미 노래 집줄 놓는 노래 짚두드리는 노래 흙이기는 노래 집터 다지는 노래 베틀 노래	물방엿돌(물ㄱ랫돌) 꺾어 내리우는 소리 토불미질 소리·청탁 불비질 소리 디딤 불미질 소리·말판 불미질 소리 뚝뚝 불미질 소리 집줄 놓는 소리 짚 두드리는 소리 질 딱림 소리 집터 다지는 소리·달구는 소리 베쿨소리	男 男 男 男 男 男 男 女	길 불미마당 불미마당 대장간 길가 마당 길가 집안·그 룻굽는 곳 집안	特 特 特 特 特 特 全 全	× × × × △ △ × × ×

資料 : 金榮敦(1965), 『濟州道民謠研究上』.

註 : 1) 口演地域 : 全… 全域, 海…海村, 特…特殊地海村…海村中
特殊地域

2) 作業傳承 : ○…現在傳承 △…사라져감 ×…사라짐

<표 8> 제주도 노동요의 辭說내용 분석

(단위 : 편,%)

區分 內容		노 동 요 전 반		맷돌 -방아 노래		해녀노래		김매는 노래		타작노래		기타 노동요	
		篇 數	構 成 比	篇 數	構 成 比	篇 數	構 成 費	篇 數	構 成 比	篇 數	構 成 比	編 修	構 成 比
노 동 실 태		240	21	27	3.4	102	51.3	34	77.4	26	92.8	51	91.2
民 間 의 情 意	生 活 若 白 立 · 勤 勉	244	21.4	193	23.7	39	19.6	6	13.6	2	7.2	4-	7.1
	시집살이	46	4	45	5.5	1	0.5	-	-	-	-	-	-
	愛 情	93	8.1	92	11.3	1	0.5	-	-	-	-	-	-
	家 事 · 家 族	127	11.1	91	11.1	86	18.1	-	-	-	-	-	-
	情 驚 世	191	16.7	184	22.6	5	2.5	2	4.5	-	-	-	-
	信 仰 · 風 土	88	7.7	81	9.9	5	2.5	2	4.5	-	-	-	-
	꿈 · 信 望	57	5	54	6.6	2	1	-	-	-	-	1	1.7
計		56	5	48	5.9	8	4	-	-	-	-	-	-

資料: 金榮敦(1965), 「濟州道民謠研究上」

<표 8>에서 보면 ‘맷돌·방아노래’에서는 약 97%의 辭說이 민간의 심정을 노래한다. 또한 ‘타작노래’의 경우는 민간의 심정을 드러내는 辭說이 불과 7%이고, 노동실태를 노래하는 비율이 93%에 이른다. 그러나 ‘맷돌·방아노래’의 辭說내용은 민간생활인 서민의식이 대부분으로 생활고·자립근면·시집살이·애정·가사·가족·신앙풍토·꿈과 소망 등 그 題材는 다양하다.

특히 ‘해녀노래’는 거센 파도 위에서 노를 젓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노동실태가 51.3%이고 일상적 감정이 48.7%로 비슷한 비율이다.

1. 해녀노래의 배경과 분포

‘해녀노래’는 예로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승되는 ‘뱃노래’의 일종이다.

그러나 제주도 ‘해녀노래’가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뱃노래’와 다른 점은 반드시 ‘해녀’라는 특수한 집단에 의해 해녀작업을 하기 위해 오갈 때에만 탄 배의 노를 저으며 부르는 민요라는 점이다.¹⁹⁾

특히 해녀들이 작업하러 바다로 나갈 때에는 그 연안의 지형에 따라 해엄처 나가거나 배를 타고 먼바다로 나가기도 하는데, 해엄처 나가 작업하는 경우를 ‘갯물질’이라 하며,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를 ‘뱃물질’이라 한다.

그런데 ‘해녀노래’는 ‘갯물질’하러 나가면서도 가끔 부르지만 대부분은 ‘뱃물질’할 때 노를 저으면서 노를 젓는 동작에 맞추어 구연한다.

제주도에는 해안 마을마다 해녀가 있으며 해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해녀노래’가 전해진다.

이러한 ‘해녀노래’는 辭說 자체로만 보아서도 ‘맷돌·방아노래’와 함께 제주도 민요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맷돌·방아노래’와는 불리는 분위기와 그 상황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첫째, 노래하는 장소가 파도가 출렁이는 배위에서 노를 젓는 동작에 맞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분위기다.

둘째, 혼자서 노를 젓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적어도 둘 이상이 함께 노를 저으며 노래하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지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을 상황이 아니다.

셋째, 노래하는 동안이나 기회가 ‘맷돌·방아노래’처럼 자주 오랫동안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하여 ‘해녀노래’의 辭說은 ‘맷돌·방아노래’에 비하여 辭說이 덜 가다듬어 지나 辭說의 소재가 다른 노동요에 비하여 풍요롭다. 왜냐하면 해녀들은 단지 제주도 연안에서만 물질을 했던 게 아니라 아세아 4개국에 물질을 나갔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도 해녀들의 행동반경은 아주 넓었는데, 광복

19) 위의책, p. 67.

이 될 때까지 해마다 수백 명씩 일본에 물질을 하러 드나들었다. 아주 드물지만 칭따오(靑島)·파리엔(大連) 등 중국이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러시아로 물질을 나가기도 하였다.²⁰⁾

그리고 본토 출가 때에는 범선으로 며칠이고 바다 위에서 노를 저어 나감으로써 노래할 기회가 흔했기 때문에 빼어난 辭說들도 드러난다.

2. 해녀노래의 전승과 전승자

민요의 死活與否를 두고 그 작업과 관련시키면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²¹⁾ ‘해녀노래’는 작업과 민요 모두가 현전되기는 하나 이 둘이 분리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해녀노래’는 현재 전해지기는 하지만 해녀 작업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노를 젓는 작업과 함께 불리는 ‘해녀노래’의 자연적 전승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 조건에 따르는 조사란 기대할 수 없고 인위 조건에 따라야만 구연되고 조사할 수 있다.²²⁾

모든 노동요의 조사 여건이 이러한 실정이지만, 다행히도 제주도 해안 마을마다 해녀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또한 꾸준히 해녀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녀노래’ 전승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업과 민요와의 분리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아직도 본래의 역동적인 ‘해녀노래’를 부르는 해녀들이 많다.

모든 민요의 전승자가 그러하지만, 해녀 가운데서 비교적 노래에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야 ‘해녀노래’를 제대로 노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해녀들은 ‘해녀노래’의 가락에는 거의 익숙해 있어서 후렴만은 대체로 부를 줄 알지만, 오늘날 해녀수가 나날이 줄고 해녀들이 노를 젓는 일도 거의 사라졌다.

‘벧물질’의 경우에도 근래에는 동력선을 타고 나가는 경우가 흔하며 본토출

20) 濟州道(1996), 「濟州의 海女」, 濟州道, p. 466.

21) 민요 가운데도 특히 노동요의 경우, 작업과 민요의 상관에 관점을 둔다면, ① 작업과 민요 모두가 현전될뿐더러 이 둘이 밀착된 경우, ② 작업과 민요 모두가 현전되기는 하나 이 둘이 분리된 경우, ③ 작업은 이미 사라지고 민요만 남겨진 경우, ④ 작업은 남아 있으나 민요는 사라진 경우인데, <해녀노래>는 ②에 해당된다.

22) 金榮敦(1983), 앞의책, p. 74.

가의 해녀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해녀들은 ‘해녀노래’를 부를 기회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래의 ‘해녀노래’의 전승자는 50대 이상의 해녀이거나 또는 해녀 작업의 경력을 쌓은 분들이므로 무엇보다 ‘해녀노래’에 대한 전승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3. 해녀노래의 기능과 제재

해녀들은 제주도 연안에서 ‘벉물질’ 하러 오갈 때, 또는 한반도 각 연안으로 물질을 오갈 때 탄 배의 노를 저으면서 ‘해녀노래’를 불렀다. 또한 해녀들이 한반도로 출가할 때에는 흔히 돛배를 이용했다. 바람이 멎어 배가 느리거나, 바람이 거슬러 불어올 경우에는 해녀들이 힘써 노를 저어야만 했으므로 해녀들은 노를 젓는 동작에 맞추어 ‘해녀노래’를 생동감 넘치게 선후 창을 하거나 교창을 하며 구연했다.

이처럼 해녀들은 ‘해녀노래’를 힘차게 부를 때 일제히 규칙적인 동작으로 노를 저어 갈 수 있었고, 또한 辭說내용에 도취된 채 스스로를 고무하며 격려했다.

무엇보다 음악적 율동이 辭說에 곁들이기 때문에 해녀들은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노를 저어 가는 사이에, 노젓기가 한결 즐겁고 가벼워지며 해녀들의 건강하고 절실한 삶을 새로이 인식했다. 이와 같이 노동요는 지루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노동을 치르며 구연에 참여하는 청중들에게 발흥과 조흥, 그리고 심미적 쾌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뚜렷이 보여준다.²³⁾

농어민들은 여러 가지 노동과 더불어 술한 노동요를 부름으로써 일을 한결 즐겁게 치르게 될 뿐더러, 행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덜 지루하고 힘이 덜 든다. 그리고 행동통일이 됨으로써 일꾼들이 노래에 맞추어 질서있게 일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작업과 밀착된 노동요의 기능이다. 따라서 ‘해녀노래’의 辭說은²⁴⁾ ① 해녀작업 출발의 노래(16편), ② 해녀작업의 노래(38편), ③ 해녀 출가

23) 위의 책, p. 86.

24) 金榮敦(1965), 『濟州道民謠研究上』, 일조각, p. 87.

의 노래(64편), ④ 해녀 출가생활의 노래(19편), ⑤ 사랑노래(37편), ⑥ 해녀들의 여정(25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분류는 辭說에 드러나는 題材에 기준하였다.

무엇보다 해녀작업 그 자체에 터전하여 노래한 ①~④에 비하여 ⑤~⑥은 해녀 작업과 직결되지 않은 채, 해녀들이 나날이 부딪치는 생활감정만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①~④ 가운데, ①~②는 해녀작업 실태를 다루었고, ③~④는 해녀출가를 폭넓게 題材하였다.

그러므로 비교적 ①~④는 노동실태를 노래하는 비율이 높고, ⑤~⑥에서는 일상생활의 정감을 담은 내용이므로 그 辭說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창곡·辭說의 관계를 두고 고정적 결합을 ‘=’로, 그리고 유동적 결합을 ‘≠’로 표시한다면, ①~④의 경우는 기능=창곡=辭說로 표현되며, ⑤, ⑥의 경우는 기능=창곡≠辭說로 정리할 수 있다.²⁵⁾ 또한 ‘해녀노래’의 題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녀 작업자체에 역점을 두어 ①⑥의 題材를 자세히 분류하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면 題材 ①에서는 뱃물질로서, 연안에서 배를 타고 작업장까지 나가는 辭說과 배를 이용하지 않고 작업장까지 헤엄쳐 나가는 ‘갯물질’ 할 경우의 辭說로 나누어진다. 또한 題材 ②에서는 해녀들의 작업전반이 題材로 드러나는데, 무엇보다 해녀들이 해녀기구를 챙기고 수심 깊이 무자맥질하는 모습, 목숨 걸고 해산물을 캐는 실상과 고난이 노래되고, 억척스럽게 벌어들인 소득으로써 궁핍한 생계에 이바지하는 잔잔한 환희도 드러난다. 그리고 해녀작업의 고됨을 토로하면서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嘆老하기도 한다.

25) 장덕순 외(1971), 『口碑文學概說』, 일조각, pp. 79~81.

〈표 9〉 해녀노래의 題材 분류

(단위 : %)

題 材	題 材 分 類	篇 數	比 率	要 素
①海女作業出發	I. 배 타 나감 II. 헤엄쳐 나감	11 5	5.5 2.5	機能, 唱曲辭說이 대체로 固定的 結合
②海女作業	I. 잠수작업 II. 해산물채취 III. 고역토로 IV. 인생무상 V. 作業目的	8 12 9 4 5	4.0 6.0 4.5 2.0 2.5	"
③海女出家	I. 해녀 出嫁 II. 노젓는 출가 III. 배와 뱃사공 IV. 出嫁 하는 뱃길 V. 出嫁 의 目的	5 29 9 15 6	2.5 14.6 4.5 7.5 3.0	"
④海女出嫁 生活		19	9.6	"
⑤愛 情	I. 相思 II. 戀慕	16 21	8.1 10.6	機能, 唱曲은 固定的 結 합이나 사설은 流動的.
⑥餘 情	I. 신세한탄 II. 일상정의	9 16	4.5 8.1	"
計		199	100	

資料: 金榮敦(1965), 『濟州道民謠研究上』

IV. 해녀노래 辭說題材 분석

‘해녀노래’ 辭說 題材를 기준 하여 분류해 본 결과 ‘해녀노래’ 辭說에는 해녀들의 삶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해녀 작업의 노래 38편에는 해녀들이 해녀도구를 챙기고 수심깊이 무자맥질하는 모습, 목숨걸고 해산물을 캐는 실상과 고난 그리고 억척스럽게 벌어들인 소득으로써 가정경제에 이바지하는 모습과 해녀들의 꿈과 희망이 題材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IV장에서는 해녀작업의 노래 38편을 ① 잠수작업에 드러난 해녀의 생활상태, ② 해산물 채취에 따른 해녀의 작업도구, ③ 작업목적에 드러난 해녀의 경제의식을 題材별로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잠수작업

1) 해녀의 생활상태

‘해녀노래’ 辭說이 지니는 基調에는 바다를 집안이나 밭과 다름없이 인식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또한 해녀작업을 결사적으로 끝아가는 해녀들의 의지가 드러난다.

- | | | |
|---|------|---------------------|
| ① | 너른바당 | 앞을재언 |
| | 흔질두질 | 들어가난 |
| | 저승질이 | 왓닥갓닥 ²⁶⁾ |

제주 해녀들이 창망하고 드넓은 바다에 나가 해산물을 캐느라 무자맥질하는데 목숨을 건 투지가 어련히 드러난다. 또한 이처럼 위험이 도사린 바닷속에 뛰어들어 목숨걸고 잠수작업에 온 힘을 쏟는 해녀들의 숭고한 삶의 모습과 해녀작업은 그대로 바다에 생명을 건 생업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너른 바다의 앞을 재어”란 곧 수심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해녀들은 보통 15~20피트에서 작업하지만, 필요할 경우면 70피트까지도 들어간다.

26) 金榮敦(1965), 앞의책, p. 214. 노래 832번.

더구나 제주 해녀는 일단 물 속에 잠기면 물 속에서 평균 30초 정도 머물지만, 때로는 2분 넘게도 견딘다. 수심 깊어 들어가서 이처럼 오래 견딜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해녀 작업을 하며 한달 평균 15일 이상 작업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실로 초인적이어서 제주 해녀를 더욱 세계적 존재로 이끈다.²⁷⁾

“저승길이 왓닥갓닥”의 표현은 노래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열 길, 열두 길까지 들어가서 전복을 캐어 나오기에는 숨이 너무 가빠 ‘본조개’ 같은 조개껍질로 표시해 두었다가 이내 다시 무자맥질해서 캐기도 한다. 빗창으로 억지로 캐다가 숨이 막혀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저승길이 오락가락 하는 상황을 직설적으로 “저승질이 왓닥갓닥”이라는 말로써 절박한 사정을 표현하였다는 데 해녀들의 역동적인 작업실태가 엿보인다.

② 물에 들민 숨비질 소리
산엔 가민 우김새 소리
가름엔 들민 하기새 소리
귀에 쟁쟁 울리엄서라²⁸⁾

‘태왁’과 ‘망시리’를 물 위에 띄워 두고 해녀들은 30초쯤 물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수면으로 나왔다가 또 잠입하는 일을 되풀이한다. 일단 수면으로 올라올 때마다 해녀들은 호흡을 조절하는데, 이 휘파람 소리를 ‘숨비질소리’·‘숨비질소리’·‘숨비소리’ 등으로 불린다. 물질이 한창일 때면, 술한 해녀들의 숨비질소리가 해안에 메아리치는데, 이는 마치 교향곡 같아서 이국적 정취를 자아내기도 한다.

해녀들은 무자맥질을 10회 되풀이하고 나면 체온이 떨어져 해변가에 마련한 불턱에서 모닥불을 켜고, 먼저 물에 나온 사람은 잠수들이 바다로 올 때 한 단씩 가져온 땀감에 불을 당긴다. 우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불을 당기며 소리를 구워 먹기도 하고, 미역의 귀를 도려내어 부지깥이에 매달고 파랗게 그을려 먹으면서 온갖 새소식을 주고 받는다.²⁹⁾

<표 10>에서 보면 해녀의 1일 평균 작업횟수가 2회로 드러나지만, 이는 ‘물

27) 이경남(1968), 앞의논문, p. 2.

28) 金榮敦(1965), 앞의책, p. 218. 노래 845번.

29) 한림화·김수남(1987),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한길사, p. 30.

옷'이라는 재래의 綿製 해녀복을 입었을 때의 상황이다. 오늘날에는 고무옷을 입고 바다에 들면 3~4시간 작업이 이어지거나 6시간 남짓까지도 견디므로 작업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해녀들은 '고무옷'을 입으면서 배설량을 줄이려고 물질하기 직전에는 오히려 덜 먹거나 굶어서 바다에 잠수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

해녀들은 탄탄한 체력이 전제되어야 거친 바닷속을 누벼 다니며 넘치는 의욕대로 해산물을 캐어낼 수 있는데, 고무옷을 착용하면서 “좁수 머긔 밧갈새 머긔”이란 속담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③ 어느제민 열다솜나경
비양도섬의 짓 넘은 메역
가시 테로나 웬기로 가코³⁰⁾

제주 해촌의 소녀들은 10살이 지나면서 해엄치기와 무자맥질을 익힌다. 해녀기구와 더불어 소녀들은 여름 한철 물질을 익히는 것이 생활이다.

바다는 바로 바닷가 소녀들의 마당이고 집 울타리이다. 이러한 사이에 하군 해녀로 자란다.³¹⁾ 하군 해녀들은 우뚝가사리와 소리를 팔아서 저축하면서 자립·자존의 생활을 익히며 소녀의 꿈을 키워 나간다.

그러나 1985년에 이르러서는 20대 해녀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주도 여자 중학교 진학률이 1984년 98.4%임을 감안하면 해녀수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더구나 <표 4>에서 해녀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85%이상이 국졸(국졸이하)이고, 중졸이 13.2%, 그리고 고졸이 1.8%로 나타났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해녀가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의 해녀는 한 명도 없다. 이처럼 해녀의 고령화 현상은 해녀수의 감소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해녀노래'의 전승위기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녀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30) 金榮敦(1965), 앞의책, p. 218. 노래 847번.

31) 해녀는 그 기반에 따라 상군·중군·하군으로 나누어지는데, 반드시 연령의 높낮이에 매이지 않는다.

〈표 10〉 제주해녀의 월별 1일 평균작업 회수 비교

(단위: 회)

月	成山邑吾照理	西歸浦市 大浦里	舊左邑 演坪里	大靜邑 加波島	翰京面 龍水里
1	1.9	2.4	1.1	1.7	1.2
2	1.9	2.3	1.2	1.8	1.5
3	2.1	2.4	1.8	2.0	2.4
4	2.4	1.8	2.0	2.3	2.2
5	1.8	2.1	1.9	2.4	0.6
6	1.9	2.1	2.1	2.6	0.8
7	1.7	2.3	2.2	2.8	2.1
8	1.9	1.6	1.9	2.8	2.0
9	1.8	1.4	1.7	2.2	1.4
10	1.8	1.3	1.7	2.1	0.8
11	1.8	1.7	1.3	1.8	1.3
12	1.8	1.9	1.3	1.7	0.3

資料 : 『海女生活調査報告書』, 濟州大, 1978.

註 : · 吾照里 : 1974年 7月調査 · 大浦里: 1975年 8月調査
 · 全 邑 : 1973年 8月調査 · 加波島: 1974年 8月調査
 · 龍水里: 1973年 12月調査

2. 해산물 채취

1) 작업도구

해녀들의 人漁는 어장을 전제로 하며, 어장은 바로 해녀들의 발이다. 그러므로 해녀들은 작업하는 바다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잘 알고 있다.

- ④ 몸짱이랑 집을 삼앙
 눅고개랑 어명을 삼앙
 요바당에 날 살아시민
 어느 바당 걸릴 왜 시랴³²⁾

해녀들에게는 해도가 머리 속에 훤히 그려져 있다. 어디쯤 가면 그 해저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으며 암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물결은 어느 만큼 거센가를 잘 기억한다. 또한 해산물이 어떻게 채취되는 가도 일일이 기억한다.

“모자반덩일랑 집을 삼고”는 바로 바다는 해녀들의 작업장이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가정의 일로 인식하는 해녀들의 역척스러움이 담겨있다. 이와 같이 해녀들이 패류, 해조류를 채취하는 바다를 제1종공동어장이라 한다.³³⁾

- ⑤ 너른 바당 앞을 재연
 흔 질 두 질 들어간
 홍합 대합 비죽비죽
 미역귀가 너홀너홀
 미역에만 정신 들연
 미역만 학단 보난
 숨 막히는 중 몰람고나³⁴⁾

해녀들이 정해진 바다에 이르러 무자맥질하며 해산물을 캐는 숨막히는 물질의 실정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미역이 해녀들의 중요한 채취물임을 잘 알 수 있다. 제주 도민의 주곡이 조·보리였던 것과 같이 바다밭 해산물의 주장은 미

32) 金榮敦(1965), 앞의책, p. 210. 노래 816번.

33) 제1종공동어장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하면 최간조시 수심 10미터 이내의 수면을 말한다.

34) 金榮敦(1965), 앞의책, p. 214.

역이었다.

이처럼 미역은 제주도에 있어서 중요한 食料이며 시장 상품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산모에게 먹이는 미역국은 없어서는 안될 약초로서 중히 여겼기 때문에 수요와 시장 가치가 높아서 “미역만 믿고 산다”는 말이 해녀들 사이에 유행어가 된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제주 해녀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삶의 지혜와 대자연의 섭리를 터득하며 살아갔다.

⑥	구쟁기랑	잡거들랑
	닷 섬만	잡게 흥곡
	전복이랑	잡거들랑
	여든 섬만	잡게 흡서
	못 사는	우리 팔조
	호번 아주	고쳐 보게 ³⁵⁾

소라 닷섬, 전복 여든섬을 잡았으면 하는 해녀들의 꿈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전복은 ‘해녀노래’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름도 가지가지다. ‘생복’, ‘좁복’ 등과 더불어 ‘전복’이란 말도 그대로 쓰인다. 해녀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물 속에서 커다란 전복을 발견했을 때라고 한다. 이처럼 ‘해녀노래’ 辭說에 드러나는 해산물을 살펴보면, 해녀들이 해산물을 보는 시각과 관심 그리고 그 값어치를 알 수 있다.

<표11>은 ‘해녀노래’ 辭說 38편에 드러난 해산물의 빈도수를 조사한 것이다.

35) 金榮敦(1965), 앞의 책, p. 216. 노래 838번.

〈 표 11 〉 해녀노래 사설에 드러난 해산물 빈도수

(단위: %)

해 산 물	빈 도 수	비 율	비 고
소 라	8	21	
전 복	11	28.9	
미 역	8	21	
천 추	4	10.6	우뭇가사리
진 주	2	5.3	
홍합 · 대합	5	13.2	
계	38	100	

資料: 『辭說題材』를 분석하였음.

‘해녀노래’ 辭說에 드러난 해산물 빈도수에서 전복(28.9%), 미역(21%)은 해녀들의 주요 생계 수단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소라의 순수한 제주어는 ‘구쟁기’인데, 노래 辭說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우뭇가사리의 경우에도 ‘천추’로 홀로 드러나지 않고 ‘천추 도박’으로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생복’ 역시 홀로 辭說에 드러나기 보다는 ‘고동’과 함께 어울리어 ‘고동 생복’으로 노래된다.

- ⑥ 유리잔을 눈에다 부치곡
 테왁을 가슴에 안곡
 무췌 빗창 손에 찌곡
 지픈 물 속 들어 보난
 수심 줌복 하서라마는
 내 숨 풀란 못호여라³⁶⁾

36) 위의책, p. 214. 노래 834번.

바닷속 깊이 전복은 보이는데도 숨이 짧아 따지 못하는 해녀들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수심 20미터까지 들어가 2분 넘게 견디는 놀라운 기반을 지닌 해녀들이지만 언제나 의욕을 못 따르는 아쉬움이 있다. 한번 무자맥질하면 해녀들은 보통 30초쯤 작업한 다음 수면에 솟아 ‘테왁’을 붙잡아 숨비소리를 낸다.

‘테왁’은 <그림 1>과 같이 해녀들이 물질할 때 몸을 가벼이 띄워 주기도 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채취한 해산물들을 물 위에 띄워 보관해 주기도 하는 ‘두렁박’을 말한다.³⁷⁾ 이와 같은 ‘테왁’은 해녀들의 표상이다. 시퍼런 바다 위에 둥둥 뜬 ‘테왁’은 곧 해녀가 무자맥질한다는 표시이고, 또한 물질의 행동반경을 드러내는 放射中心이 되며, ‘테왁’ 밑에는 채취물을 넣어 두는 망시리를 매달아 놓는다.

〈그림 1〉 테왁과 망시리



資料 : 1997년 4월 7일 촬영 (성산읍 온평리).

註 : 테왁에 달려 있는 망시리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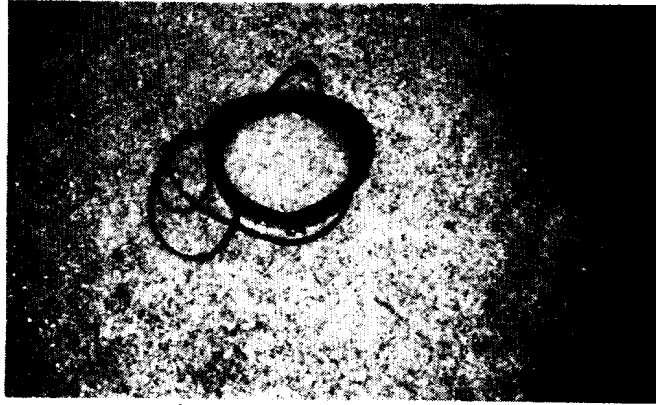
오늘날에는 튼튼한 ‘나일론’ 실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미’라는 나무 껍질을 벗겨 끈을 만들어 망을 떠 사용했었다.

유리잔은 해녀들이 작업할 때 끼는 水鏡을 말하는데, <그림 2>와 같다. 지난 날 해녀들이 사용했던 소형 쌍안경은 ‘족세눈’이라 하며, 지금 해녀들이 작업할 때 쓰는 수경은 ‘왕눈(큰눈)’이라 한다.³⁸⁾

37) 康大元(1970), 『海女研究』, p. 49.

〈그림 2〉 물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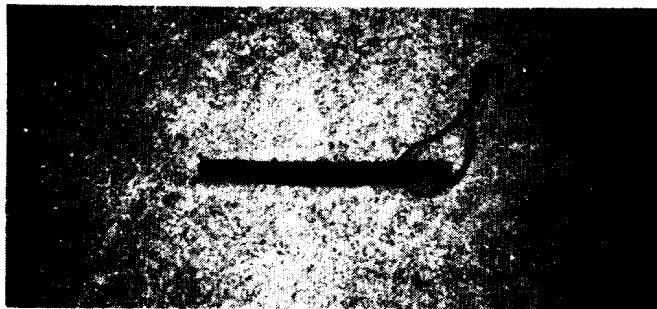


資料 : 1997년 4월 7일 촬영 (성산읍 온평리).

註 : 물안경이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서기 1820年경
부터이며, 처음의 물안경은 ‘엄쟁이 눈’ 이었다.
지금 해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안경은 ‘엄쟁이 눈’
이나 쌍안경으로 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넓고 작
업의 능률도 오른다.

‘ 빗창 ’은 전복 따는 도구로 길이 30cm, 너비 4cm 정도의 납작한 쇠붙이이
며 끝이 날카로운 유선형이다 (<그림 3>참조).

〈그림 3〉 빗창



資料 : 1997년 4월 7일 촬영(성산읍 온평리).

註 : 끝이 칼날 같이 예리하며 납작하다.

38) 위의 책, p. 51.

한 쪽 자루 끝은 원형으로 말아져서 그 구멍에 손잡이 끈이 달려 있는데 끝 부분에 달린 끈을 손에 감아쥐고 전복이 바위에 붙어 있는 밑으로 빗창을 집어 넣어 위로 제치면 전복이 바위에서 떨어진다. 가끔 해녀들이 빗창으로 전복을 따다 질식하여 숨지는 경우도 있다. 빗창은 물웃 오른쪽 뒤쪽 끈에 고리를 만들어 휴대하기도 하나 불편하여 대부분은 허리 뒤쪽에 허리끈으로 휘어 감아 휴대한다. 제주 해녀들은 전복을 채수 좋게 캐내었을 때에는 침을 톡 뱉고 난 다음, ‘빗창’으로 캔 전복을 딱딱 치면서 “아이고, 요왕할마님 고맙수다. 요것 드레 빗 부찌게 호여 줘서” 하면서 빌기도 한다.

“흔손에다 빗창채국, 호손에다 호미 채영” 하는 辭說에서도 ‘빗창’과 ‘호미’는 제주 해녀들의 중요한 작업도구임을 알 수 있다.

‘호미’는 미역·톳·우뚝가사리 따위의 해조류를 캐는 낫이다(<그림 4>참조).

〈그림 4〉 호미



資料 : 1997년 4월 7일 촬영(성산읍 온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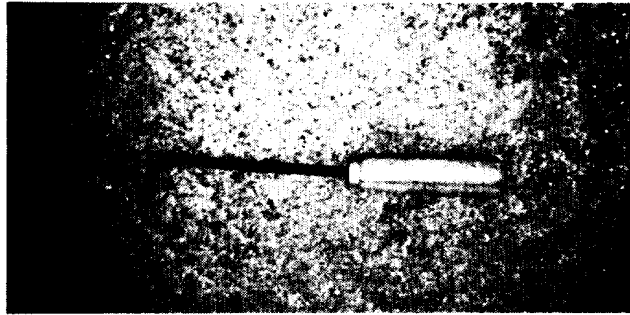
註 : 밭에서 일할 때 쓰이는 호미와 비슷하나 잠수들이 사용하는 호미는 약간 길고 알팍하며 호미로는 주로 미역, 해조류 등을 채취하는데 사용된다.

‘정게호미’ · ‘중게호미’ · ‘중게호맹이’ 라고도 하며 정게호미 길이는 20cm로 약간 길고 알팍하여 바닷물 속에서도 쇠불이 날이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제주에서는 ‘낫’을 ‘호미’라 하고 ‘호미’는 ‘굴쟁이’·‘굴각지’ 등으로 불리는데, ‘굴쟁이’는 성게, 문어 따위를 채취할 때 쓰인다. ‘굴쟁이’는 밭에서 김을 매는 골쟁이와 비슷하나 해녀들이 사용하는 ‘굴쟁이’는 30cm 내외의 가느다란 쇠붙이를 12cm 내외의 나무 자루에 지르고 쇠붙이 꼬트머리는 더욱 가늘게 되어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골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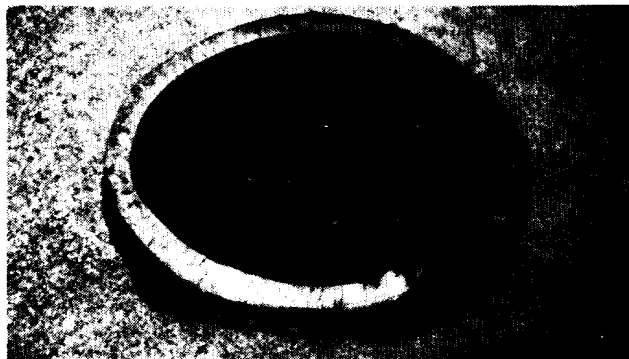


資料 : 1997년 4월 7일 촬영(성산읍 온평리).

“오라 무레질 가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떼지어 바닷가로 걸어가는 해녀들은 ‘질구덕’에 해녀 연장과 해녀복인 ‘물옷’을 챙기고 등에 걸머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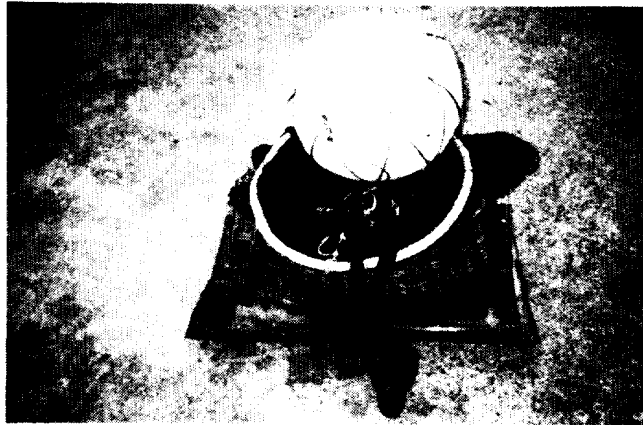
‘질구덕’은 대나무로 직경 40cm, 높이 26cm 크기의 타원으로 짜여져 있으며 바다에서는 해녀들의 소지품을 관리하는 공간이 된다(<그림 6>,<그림7>참조).

〈그림 6〉 질구덕



資料 : 1997년 4월 7일 촬영(성산읍 온평리).

〈그림 7〉 질구덕과 소지품



資料 : 1997년 4월 7일 촬영(성산읍 온평리).

註 : ‘물찌’에 맞춰서 “오라 무례질 가게”하고 이웃과 더불어 떼지어 바닷가로 걸어가는 해녀들은 ‘질구덕’에 해녀연장과 ‘물옷’을 챙기거나 입고 등에 걸머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해녀들은 오토바이에 비닐봉지를 챙기므로 질구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⑦ 총각 차라 물에 들게
양석 싸라 섬에 가게
이여싸 소리엔 닻 올라 온다
뒤여싸 소리엔 배 솟아 온다³⁹⁾

양식을 싸들고 한본토의 섬으로 바깥물길 나가던 예전의 풍습과 해녀들의 ‘총각’ 머리 모습이 드러난다. ‘총각’이란 물질하기에 편리하도록 머리를 비녀 없이 쪽찌고 ‘이멍거리’라는 머리띠로 이마에 두른 모습이다. 해녀들은 물질하려면 으레 이런 머리 모습에 물소중이, 물적삼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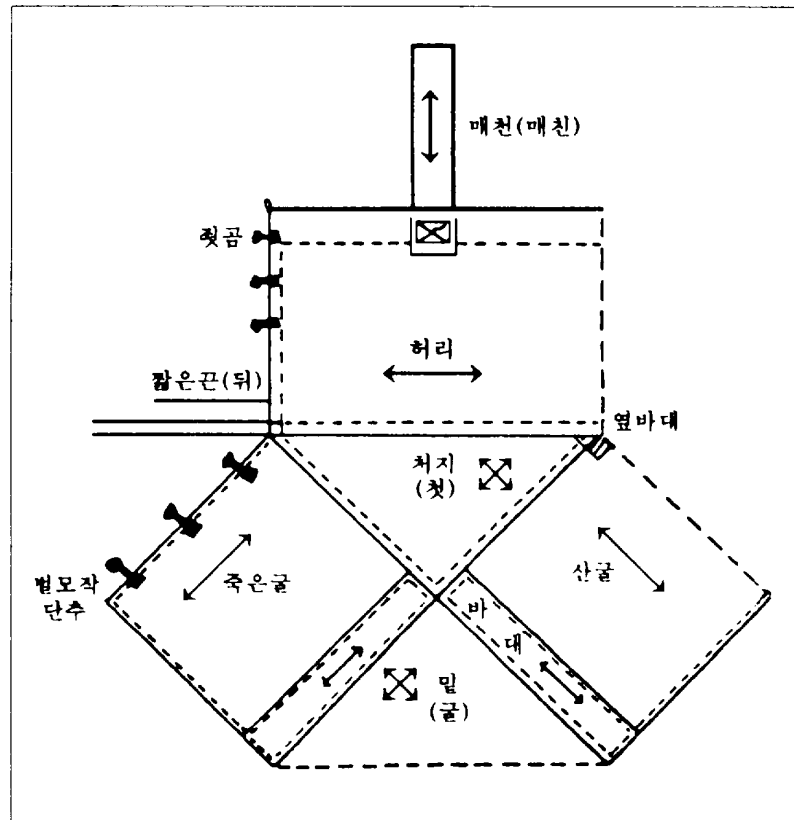
‘소중이’란 제주도 부녀자들의 특징 있는 속옷인데, 해녀 뿐 아니라 농가의 부녀자들도 속옷으로 입었으나, 농가의 부녀자들이 입는 소중이는 물질할 때 입는 것과는 달리 매친 (어깨걸이)이 없었다.⁴⁰⁾ 해녀들은 매친이 달린 물옷을 속

39) 金榮敦(1965), 앞의책, p. 210. 노래 819번.

40) 진성기(1979), 『제주민속의 멋』, 열화당, p. 54.

옷, 잠수복, 물 맞으러 갈 때 입는 옷으로 사용하여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생활을 같이 하여 왔다(<그림 8>참조). 그러나 1970년대 초기부터 일본에서 들여온 ‘고무옷’이 보급되면서 (<그림 9>참조) ‘물소중이’를 입는 해녀는 현재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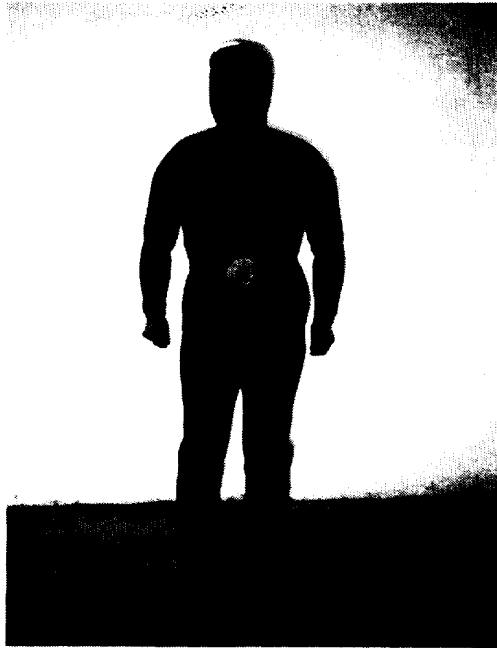
〈그림 8〉 소중이와 각 명칭



資料 : 김정숙(1989), “濟州道海女服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 91.

註 : ‘소중이’는 입을 사람의 키와 몸의 부피에 따라 제작되며,
옷의 모양새가 단순한데 비해 제작상의 작업과정은 쉬운
편이 아니다.

〈그림 9〉 고무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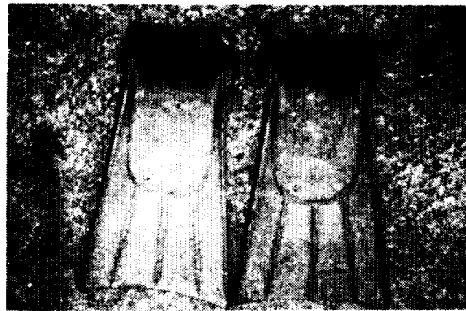


資料 : 1997년 4월 7일 촬영 (성산읍 온평리).

註 : 고무옷을 착용하면 몸을 신축성있게 조여 주어
공복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녀들은 작업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습관이 생기면서 두통에 이어 위장애와 혈
압 상승 등 잠수병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림 10〉 오리발



資料 : 1997년 4월 7일 촬영(성산읍 온평리).

註 : 오리발 착용으로 깊은 수압에서 작업이 가능
하기 때문에 두통 현상이 심하다.

이처럼 ‘물소중이’가 해녀들 사이에서 밀려난 것은 ‘물소중이’를 입고 작업했을 때와 ‘고무옷’을 입고 일할 때의 능률과 소득에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고무옷’을 입었을 때는 어획량이 종전의 5배 이상에 달하고 또 수입도 5배로 높아졌다. 또한 작업 시간도 길어져 종전 30분~1시간에서 5시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작업 장소가 수심 10미터 해역에서 12~13미터로 깊어지면서 자원 고갈과 해녀의 직업병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오리발 등 현대식 장비가 해녀들에게 보급되어 어획량 증가를 가져왔으나 이러한 利點에 못지 않게 자원고갈이라는 문제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제주신문에 의하면⁴¹⁾ 제주도 해녀 중 97%가 진통제와 진정제 등을 거의 매일 또는 잠수 작업 전후에 상습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어촌계 직원이나 해녀 연구가들은 다시 ‘물소중이’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녀의 경제적 문제와 사회복지 대책이 세워질 때 재래식 면제 해녀복은 다시 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잠수목적

1) 해녀들의 경제활동

고정종(1930)은 해녀들에 의해 채취된 1926년경의 비료용 해조류 생산 현황 통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⁴²⁾

모자반은 782,530 관을 생산하여 46,942원에 거래되었고, 잡해조류는 7,943 관을 생산하여 7,943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해녀에 의한 경제활동이 제주사회의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녀들에 의한 항일투쟁 말기에 제주섬 전역에서 해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일제의 동경문리과 대학의 한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⁴³⁾ 1932년 8월 현재, 해녀조합원은 8,862명이 고 비조합원 수를 합치면 15,000명 정도이고, 제주 해녀에 의해 당시 화폐단위로

41) 제주신문, “해녀들 잠수병 갈수록 심각,” 1989년 3월 23일, 1면.

42) 고정종 편(1930), 『제주도편람』, 영주서림, pp. 38-39.

43) 마스다이치지(1930),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 제주시우당도서관 역(1995), p. 66.

28만원 상당의 어획고를 올렸다고 한다. 또한 해녀의 출가 물질에 의한 수익금도 1백40만원⁴⁴⁾에 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수입이 해녀의 물질 작업으로 얻어짐에 따라 일제 관리들의 황포도 심해 결국 1931年末에서 1932年初에 걸쳐 제주도에서 대대적인 해녀의 항일투쟁 운동이 전개된다. 아울러 일본의 건어물업자들이 들어오면서 멸치와 감태 그리고 미역에 의한 수입은 가정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방이 되면서 지금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화 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들어선 학교시설 몇 군데 외에는 기반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뜻있는 독지가가 학교부지를 헌납하면 해녀들이 물질수입으로 학교건물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조달하였다. 지금도 바닷가 마을에 남아 있는 ‘학교바당’은 제주 해녀들의 교육열이 매우 높았음을 말해준다.

⑨	새끼섬	우의는
	올랭이가	노는디
	시퍼렁흔	바당 우원
	요내몸이	뗏고나
	흔 손에다	빳창 췌곡
	흔 손에다	호미췌영
	메역 생복	똥다근
	어린 자식	공부호영
	적제주 판스	시길랴고
	바당 우의	시달리는
	불쌍흔	이내몸아
	어느제믄	이내몸도
	존 시상	만나근에
	눔광ㄴ찌	산단말고 ⁴⁵⁾

제주 해녀들의 ‘미역’ · ‘생복’ 캐기를 위주로 물질하여 어린 자식 공부시키고 제주 판사를 시키려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난다. .

44) 위의책, p. 78.

45) 金榮敦(1965), 앞의책, p. 226. 노래 868번.

〈표 12〉 전국·제주의 소득을 비교

(단위: 원, %)

구 분	전 국 어 업		제 주 해 녀	
	1985	1995	1985	1995
가계비(①)	2,547,837	13,138,866	2,547,837	13,139,000
경비(②)	287,810	7,715,408	165,434	185,000
소득(③)	1,555,764	9,437,156	2,039,566	9,892,655
조수입(②+③=④)	1,843,574	17,152,564	2,205,000	10,077,655
가계비충족도(③/①)	61.1	71.8	80.1	75.3
소득율(③/④)	84.4	55.0	92.5	98.2

資料 : 농수산부 『농림수산부 통계연보』, 1984~1995년.

註 : 제주 해녀의 1995년 조수입과 경비를 생산읍 온평리 현지 조사에 의해 작성함. (제주해녀 경비는 해녀도구 70,000원, 영등굿 5,000원, 어촌계 연회비 5,000원, 양식시설 보수 5,000원, 계: 185,000원)

<표12>에 따르면 전국 어선비사용 어업가구의 가계비 충족도가 61.6%에 비하여 제주 해녀 수입의 가계비 충족도는 이보다 훨씬 높은 80.1%로 드러난다.

따라서 제주도 해녀의 가계비 지출에 해녀 수입이 80% 이상 충족되는 셈이다. 더구나 1995년에는 가계비 지출이 75.3% 이상이 해녀 수입에 의하여 충당되었다. 이처럼 해녀마을에서 해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해녀들은 제1종 공동어장을 소중히 가꾸면서 작업을 하는데, 해녀들이 주요 어종별 생산추세는 <표13>과 같다.

<표13>에서 보면 해녀들의 소득에 크게 기여했던 미역은 1968년에 6,640 m/t으로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다가 1983년에는 317m/t 생산에 머물게 된다. 또한 1964년경부터 시작된 육지부의 미역 양식으로 1974년에는 육지부의 양식 미역 생산량이 187천톤에 이르게 되어 제주도의 황금어장이었던 미역은 판로를 찾지 못하고 바다에서 썩히게 된다.

더구나 현재는 소라 양식에 필요한 일조량에 지장을 주고 있어 미역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동원해야 하는 어종이 되고 말았으며, 집안의 부식 정도만 갖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톳은 생산량에 큰 변동 없이 전국 생산량의 약 32% 수준으로 안정된 생산량을 유지해오다가 1995년에는 3,414m/t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5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특히 173m/t을 수출하여 제주도 수출전략 상품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녀들의 협동작업에 의해 톳의 생산량은 계속 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1〉주요 어종별 생산 추세

(단위: m/t, 백만원)

연도별 어종별	1960		1970		1980		1990		1994		1995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전복	148			61	56	299	184	3,856	57	3,600	44	3,232
오분 자기		9	128						200	5,517	159	4,390
소라	702	2		82	2,142	4,102	605	4,824	2,643	13,122	2,768	13,193
돔	5,512	4	1,591	79	5,494	1,952	3,751	1,350	3,487	2,922	3,414	4,098
천 초	571	5	4,659	30	1,897	718	4,506	1,338	6,863	4,571	7,477	5,092
갈래 곰보			722				161	617	63	169	70	42
성게							1,161	3,235	804	5,463	1,166	6,800
해삼	26	28만		11	87	87	135		90	773	96	1,077
감태			68						1,069. 5	454	119	14,863
미역	3,332	16		129								
기타 해조류	2,959	10	3,847	148	7,819	2,685					4,332	60
기타 패류			11,453		1,971	3,922			110.9	154	39.7	53

資料 : 제주도 『수산현황』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 위판현황에서 작성.

註 : 1960년도 '기타' 란의 해조류, 패류가 분류 안되어 '기타해조류'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그리고 1960年이래 1990年까지 33年간의 해조류 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13 -2 〉 연도별 해조류 생산량

(단위: m/t, 백만원)

연 도	수 량	금 액
1961	13,082	34
1965	8,877	93
1970	19,903	266
1975	35,247	715
1980	19,336	3,233
1989	12,181	6,622
1990	11,041	5,205

資料 : 제주도 수산과 통계 자료에서 작성.

- ⑩ 일성으로 못흐나망정
 소리로나 권력이다
 먼 뒷 사름 듣지 좋게
 밋뒗 사름 보기 좋게
 내가 못홀 일이 시랴
 천추 도박 놈을 준덜
 고동 생복 놈을 주랴
 요만 일사 버칠 말가⁴⁶⁾

46) 金榮敦(1965), 앞의책, p. 218. 노래 844번.

우뭇가사리와 도박은 남을 주어도 고동·생복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해녀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특히 소라는 해녀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주도에서만 아니라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해녀들이 소라를 보는 시각과 관심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는데, 제주도의 소라 생산 추이는 <표14>와 같다.

〈표 14〉 제주도의 소라 생산 추이

연도별 구분	'60	'70	'80	'81	'82	'83	'84	'85	'90	'94	'95
생산량 (m/t)	702	1,591	2,145	2,929	3,368	3,648	3,332	3,163	605	2,643	2,768
금액 (百萬元)	2,496	82,732	4,102	5,400	7,368	8,760	9,116	8,945	4,824	13,122	13,193

資料: 제주도 『수산업현황』, 1985, 1995年.

소라 생산량은 1979년에 2,650m/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그 후 점차로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1983년에는 3,648m/t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1995년에는 2,768m/t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31.3%를 차지하면서, 소라는 톳과 함께 제주도의 수출 전략품목이 되고 있다(<表15>참조).

<表15>에서 보면 제주도의 총수출고는 1975년이래 계속 신장되고 있다. 1984년 수출고는 23,755千\$로서 1975년을 기준으로 볼 때 10년 사이에 약 2.6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1995년 총수출고는 110,558千\$인데, 이 중에서 해녀들의 어획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8%가 되며 소라와 톳은 수출고 중에 66.9%를 차지하여 주요 수출전략 품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제주도 수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제주도 수출고의 주역을 맡고 있는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해녀도라고 하는 우도와 거의 해양조건이 비슷한 성산읍 온평리에서도 1987년에는 해녀 수가 277명이었던 것이 1996年末 현재는 10여년 사이에 148명으로⁴⁷⁾ 감소하였다. 더구나 해녀들은 가계비⁴⁸⁾에서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어떻게든 자녀들은 공부를 시켜 직장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해녀들의 공통된 의식이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녀들은 자식들이 해녀직업을 갖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해녀들 자신들은 여전히 해녀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해녀들의 물질적 작업은 반드시 家計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삶의 즐거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해녀들은 해녀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물질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어촌계 사무실과 마을회관 건립에 앞장서며 꾸준히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해녀들은 지역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에도 실질적인 보탬을 주면서 시, 군, 도 등 자치단체에 해녀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표 16> 참조). 이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해녀보호 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전개하여 1995년 12월 현재 현대식 해녀 탈의장을 156여동⁴⁹⁾을 지어 보급함으로써 해녀들에게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또한 해녀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해녀 특별건강 진단을 2,200명을 실시하였고 불우한 해녀를 찾아 (200명) 위로, 격려하고 있다.⁵⁰⁾

오늘날도 제주의 해녀들은 현대식 해녀 탈의장에 딸린 휴게실의 유희면적을 활용하여 간이음식점을 경영하거나 자신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녀들은 전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산업인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역군으로 당당하게 오늘날도 해녀 바다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47) 1995년 해녀의 조수입과 경비를 성산읍 온평리 상군해녀 중에서 조사하였다.

48) 해녀 상군 수입이 연 10,077,686(월 839,807)원인 해녀의 가계비는 13,139천원이었다.

49) 제주도(1995), 『수산현황』, 제주도, p. 17.

50) 위의책, p. 17.

〈 표15 〉 제주도 해녀 어획물 주요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천\$)

연 도 별	본도 총 수출고	주 어획물 수출고										%
		계	소라	전복 오분 작	해조 분	썬툰	알긴 산	해조 류	계관 초	성게	불가 사리	
1975	9,048	4,048	2,148	169	21	1,583	117	10				44
1980	18,764	13,284	7,124		71	1,644	708	3,737				70
1981	19,270	13,125	10,052	106		1,672	749	652				52
1982	18,964	14,549	11,069	12		1,108	173	1,585	614			76.7
1983	21,357	15,499	12,457			2,022		106	379	523	12	72.5
1984	23,755	13,807	11,410			1,307	290	276	185	339		58
1985	24,876	15,625	11,685			1,700	624	708	464	444		62.8
1986	28,951	12,739	6,472			3,468	1,171	576	639	513		44
1987	36,650	12,094	5,218			3,743	1,633	584	752	164		32.9
1988	40,097	12,436	4,932			3,239	2,927		1,338			31
1989	42,129	12,553	3,880			3,651	2,528		2,494			29.7
1990	36,098	11,298	6,568			2,410	215		2,105			31
1991	37,895	14,068	11,120			850			2,098			37
1992	40,265	11,008	7,321			620			1,944	1,123		27
1993	82,444	12,316	8,221			2,070			355	1,670		14.9
1994	96,709	20,649	16,304			1,428			371	2,546		21
1995	110,558	28,304	16,779			2,137			689	3,845		28

資料 : 제주도, 『수산현황』 지역경제과 통계에서 작성.

註 : 1995년 통계에는 '보말'과 기타 패류 수입 48,000\$이 추가된 수치임.

〈 표 16 〉 해녀의 건의 및 애로사항

시군별	건의 내용	비 고
제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잠수건강 진단 · 스쿠버다이버 단속 · 수산물 가공 공장 설립 · 자원 증식사업 행정지원 확대 	
서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라포획 금지기간 단축 · 정기적 잠수건강 진단 · 잠수산업 시찰 확대 실시 	(현행) · 6. 1~9. 30 → 7. 1~8. 31 · 년 2회
북제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잠수 건강 진단 · 스쿠버다이버 단속 · 탈의장 연료비 지속 확대 · 나잠 작업도구 개선 · 조업 일수 법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타도스쿠버, 무인도 · 스쿠버식
남제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잠수 건강 진단 · 잠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수산 사업 보조금 확대 · 잠수 탈의장 보강시설 확대 · 잠수 공동수익 사업지원(직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수도·보일러 등

資料: 도청 수산과 자체 조사자료, 1994年.

V. 해녀노래 구연 방안

오늘날 제주의 ‘해녀노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해녀들에 의해서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활기찬 본래의 ‘해녀노래’이고, 둘째는 편곡되어 불리는 무대 위의 ‘해녀노래’이다. 여기에서 노를 젓는 작업과 함께 불리던 ‘해녀노래’는 이미 해녀작업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연적 전승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해녀노래’는 인위적 조건에 따라야만 구연되고 조사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해녀작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해녀노래’ 전승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업과 민요와의 분리 시기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해녀작업의 경력을 쌓은 분들은 가락에는 거의 익숙해 있어서 후렴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해녀수가 나날이 줄고 또한 본래적인 ‘해녀노래’의 전승자는 50대 이상의 해녀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녀노래’의 철저한 수집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 수집은 녹음·녹화·채보·辭說채록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녀들의 근검·불굴의 의지와 생업에 부딪치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있는 역동적인 본래의 ‘해녀노래’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 자료 개발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업요 중에서 가장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해녀 노젓는 소리’와 ‘멀치 후리는 소리’에 대한 악보와 辭說 내용을 분석하여 ‘해녀노래’를 학생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노래에 따른 춤사위 지도 자료를 도식화하여 ‘해녀노래’의 구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해녀노젓는 소리⁵¹⁾

1) 연행적 배경

제주도의 어업과 관련하여 가창 되는 민요는 ‘해녀 노젓는 소리, 멀치 후리는 소리, 떼배젓는 소리, 자리잡는 소리, 갈치 낚는 소리, 선유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해녀 노젓는 소리’는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작업을 나갈 때, 노를 저

51)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pp. 721~725.

어 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해녀들이 노를 젓고 바다로 나가는 일은 여성들로서는 매우 힘든 노동이다. 힘들게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서는 물질을 하고, 다시 노를 저어 물으로 돌아오는 해녀들의 고됨이란 상당하다. 이때 소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힘도 좋고 해녀 작업도 잘하는 상군 중에서 노젓는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 노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젓는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해녀들은 배 위에 모여 앉아 장단을 맞추면서 뒷소리를 따라 부른다. 노를 젓는 동작은 매우 규칙적이면서 강약의 대비가 분명하다. 이러한 성격은 이 노래의 박절적 규칙성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해녀들은 해녀 작업에 사용할 테왁, 망사리, 빗창 등을 가지고 배에 오르는데, 이때 테왁이나 빗창은 장단 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2). 악보와 辭說내용

‘해녀 노젓는 소리’ 辭說 내용에는 해녀작업의 과정과 해녀들의 삶이 드러나 있다. 이 노래에 나타나는 辭說의 상당량이 해녀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작업의 고됨을 달래기 위함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녀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온다. 특히 시집살이와 일상 생활의 어려운 고초를 표현하고 있다. 제주 도민들이 워낙 가난하게 살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노젓는 동작에 얹어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한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辭說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여 싸나 이여도 싸나 이여도 싸나 이여도 싸나 히
2. 혼착손에 빗창채곡 혼착손에 테왁을 췌영 히
3. 혼질두질 들오가보난 저승도가 분명허다 히
4. 요넬젓고 어덜가리 진도나바당 혼골로가민 은과금이 꼴렸던가
5. 우리어명 날날적에 해천영업 테움서로 날났던가 히
6. 이물에랑 이사공아 고물에랑 고사공아 히
7. 우리야배 켜도재다 춤매새끼 노는 듯이 히
8. 잘잘가는건 참나무배나 술술가는건 소나무배나 히
9. 요네착을 심어사면 없는 설움 절로난다 히

10. 요년덜아 혼모루만 젓어도라 앞서가게 헛

11. 우리배의 서낭님아 여깃들로 득달히게 허어줍서 헛

후렴구 및 여음으로는 ‘이어도 사나’, ‘이어 싸’ 등의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들은 노를 젓는데 힘을 내기 위하여 내는 무의미 구음들로서 조율적, 휴식적인 역할을 하는 후렴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11〉 해녀노젓는 소리

해녀 노젓는 소리

자진모리(상조) 조영배:채록,채보

(선) (모)

1. 이 여 싸 나 — — — — 이 여도 싸 나 — — — —
 2. 혼 착 손 에 — — — — 빗 창 췌 곡 — — — —
 이 여도 싸 나 — — — — 이 여도 싸 나 헛 etc.
 혼 착 손 에 — — — — 테 왁을 췌 영 헛
 * 은 과 금 이 — — — — 끝 렸 던 가 헛 etc.
 ** 이 여도 싸 나 헛 이 여도 싸 나 헛 etc.
 9. 요 내 착 울 — 심 어 사 민 — etc.
 없 는 설 움 — 절 로 난 다 —

- 1) 각 절의 가사가 길어질 때는 *부분의 2마디 또는 4마디가 삽입되기도 한다
 2) 모방 선율은 선소리를 모방하다가 ** 선율을 2마디 또는 4마디를 적절히 삽입하여 모방하기도 한다

2. 멸치후리는 소리

‘멸치 후리는 작업은 대체로 해안 마을 중에서도 바닷가에 모래밭이 있는 지역인 동쪽 지역, 특히 김녕·종달 등에서 성행했었다. 이 작업에 수반되는 멸치 후리는 소리는 지금도 구좌읍 동김녕리 여성들에 의하여 잘 전승되고 있고,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전 작업이 체계화되고 있다.

대개 해안에서 한 1km쯤 떨어진 바다까지 태우와 거룻배 몇 척이 원을 돌리면서 멸치를 모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동원되는 배들을 그 기능에 따라 당선, 망선, 닻배로 구분된다. 당선은 멸치 떼를 순시하는 기능을 하고, 망선은 그물을 직접 싣고 가는 배이며, 닻배는 닻을 놓아 그물 작업을 기준 잡는 기능을 한다.

멸치 후리는 노동은 일제히 그물을 당기고 놓고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작업이다. 이 때 그물을 당기는 사람 중에서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소리를 하고, 별도의 선소리꾼이 노래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 그물을 당기는 사람들은 동작에 맞추어 후렴구를 힘차게 부른다. 따라서 이 노동은 힘든 노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동작을 일치해서 하는 만큼 그 고됨을 흥으로써 승화시킬 수 있는 노동이기도 하다.

2) 악보와 辭說내용

‘멸치 후리는 소리’의 辭說 내용은 대부분 멸치 후리는 작업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가끔 이 작업을 통하여 돈을 벌어 생활을 꾸려 나가겠다고 하는 희망을 노래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나, 근본적으로는 멸치 후리는 작업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辭說의 고정도는 높은 편이며 辭說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소리)	(후렴)
1. 동개코랑은	눈검은여로
2. 서캐코랑은	소여끗틀로
3. 당선에서	맬발을 보고

4. 망선에서 후림을 노라
5. 닳배에서 진을재왕
6. 주저안골 사서안골괴기
7. 농평이와당에 다물려놓고
8. 앞괴기랑 선진을 놓고
9. 뒷괴기랑 후진을 노라
10. 뱃터엔 놈들은
11. 웃배리를 살짝들르라
12. 한들로 뭤나간다.
13. 그물코가 삼천코라도
14. 배릿배가 주장이여
15. 당선에망선에 봉기를 꼽으라
16. 우리조상덜 허던일을
17. 잊지마랑 되살려보자
18. 풍년왔네 풍년이 왔져
19. 농평이와당 돈풍년왔져

이 노래의 후림구는 '영허어야 디여' 등의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특정한 의미는 없고 여흥적인 감탄어구이다.

〈그림 12〉 멸치후리는 소리

멸치 후리는 소리

굿거리(상조) (선) (후) 조영배:채록,채보

영 허 어-아 디 --- 여 영 허 어-아 디 --- 여

(선) (후)

1. 동 캐-- 코 랑-은 눈 검-은 여 로 영 허 어-아 디 --- 여

2. 서 캐-- 코 랑-은 소 여-굿 톨 로

3. 춤사위 지도의 실제

‘해녀노래’는 대부분 선후 창으로 부른다. 선후 창이란 노래를 잘 하는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면 여럿이 후렴을 부르는 방법이다⁵²⁾

- ⑪ 이물에랑 이사공아
 고물에랑 고사공아
 허릿대밧디 화장아야
 물때점점 늦어나진다
 이어도차라 히 이어도싸나 히
 이어도싸나 히 이어도싸나 히

‘해녀 노젓는 소리’에서 해녀들이 흔히 부르는 辭說이다.

4행 한 편의 辭說을 부르고 나서 후렴이 따랐다. 이처럼 후렴은 뜻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래가 시작될 때라든가, 한 편 한 편의 辭說이 잘 이어지지 않거나 또는 다음에 부를 辭說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앞소리꾼도 “이어싸나 이어싸나”하면서 뜻 없는 辭說을 불리거나 공백을 만들기도 한다.

‘해녀노래’를 선후 창으로 부를 때, 후렴은 한 음보가 끝날 때마다 ‘이어싸’ · ‘이어도사’ 등의 후렴이 끼어든다. 그러나 노래 한 편이 끝난 다음에 불려지기도 한다.

- ⑫ 이어싸나 이어싸나
 요벤드레 떨어진덜
 전깃줄이 엇일말가
 가시랑이 엇일말가⁵³⁾

해녀들이 힘껏 노를 젓자는 의욕이 辭說에 드러난다.

‘벤드레’⁵⁴⁾나 상책이 끊겨도 염려할 것 없이 ‘해녀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가는 해녀들의 박진감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냥 묵묵히 노를 젓는 경우와 ‘해녀노래’의 가락을 음미하면서

52) 濟州의 海女(1996), 앞의 책, p. 234.

53) 金榮敦(1965), 앞의 책, p. 230. 노래 880번.

54)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명에와 노손을 묶어 놓은 밧줄.

辭說을 소리내어 부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생동감에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해녀노래’는 노래 자체가 격렬해서 숨가쁘기 때문에 오래 끌어야 10분쯤 부르다가 그만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辭說 한 음보를 앞소리꾼이 부를 때 뒷소리꾼 여럿이 ‘이여싸’ 등의 후렴을 부르면서 이에 춤사위를 가미한다면 ‘해녀노래’를 생동감 있게 구연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춤사위를 해녀들이 테왁을 가슴에 얹고 바다로 나가는 동작과 노를 짓는 작업을 소재로 엮었기 때문에 ‘해녀노래’를 박진감 있고 오래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해녀놀이’에 따른 춤사위 지도는 <그림 13>과 같다.

해녀 놀이

음악 : 굿거리(해녀노래 중 후렴)

대형 : 1열원형


【특징】




우리 나라에는 많은 노동요와 노동무가 있어 지방마다 특색을 가지고 불리어지며 또 춤추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속 무용들은 대부분이 장소에 따라 또는 때에 따라 즉흥적이어서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녀놀이’는 학교현장에서 일반화하거나 다함께 추는 춤으로 개발해야 하므로 해녀들이 ‘해녀노래’를 부르며 테왁을 가지고 바다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나가거나 또는 노를 힘껏 젓는 동작을 춤의 소재로 엮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辭說 한 음보를 앞소리꾼이 부를 때마다 뒷소리꾼 여럿이 ‘이여싸’ 등의 후렴을 부르며 춤사위를 지도한다면 해녀들의 숭고한 삶의 모습과 당당한 여성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필요하리라 본다.

〈그림 13〉 해녀놀이에 따른 춤사위 지도

순서	춤사위 명칭	장단	도해 및 놀이방법
1	이어사 노젓기	굿거리 2장단	<p>①전원이 1열 또는 2열 원형으로 원중심을 향해선다. 첫박에 오른발 앞으로 내딛으며 양팔을 밑으로 쭉 뻗으며, 둘째박에 왼발을 오른발 뒤로 딛으며 양팔을 앞으로 끌어올린다.</p> <p>셋째박에 오른발을 뒤로 옮겨 딛으며 상체는 약간 뒤로 젖히고 왼발을 곧게 펴며 양팔은 위로 올렸다가 가슴 앞으로 힘껏 끌어당긴다. (이때 체중은 뒷발에 둔다.) 넷째박에 왼발을 딛으며 몸전체를 바른 자세로 해서 제자리로 온다.</p> <p>② ①을 반복한다.</p> 

2	테왁잡기	곳거리 1장단	<p>① 진행 방향으로 (2줄일 경우는 1줄을 진행 반대방향) 1박 1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가며 양팔을 교대로 테왁을 잡는 동작을 한다. (이 때 오른 발, 오른팔부터 시작한다.)</p> 
3	테왁들고 뛰기	곳거리 1장단	 <p>테왁을 양팔에 걸친채 흥겹게 진행 방향으로 1박 1걸음 뛰기로 4박 뛰어 나간다.</p>
4	테왁들고 춤추기	곳거리 2장단	<p>진행 방향으로 까치걸음(투스텝) 으로 흥겹게 걸으며 손에 잡은 테왁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며 걷는다.</p>
5	테왁 어깨에 매기	곳거리 2장단	<p>① 첫박에 오른발을 왼발으로 내딛으며 테왁을 던지듯 양팔을 위로 뻗어 바깥쪽으로 어깨에 맬 준비를 한다.</p> <p>둘째박에 오른발로 제자리에서 뛰며 양팔을 바깥쪽으로 뿌리며 아래로 내린다.</p> <p>세째박에 왼발을 딛으며 양팔을 위로 들어 테왁을 짊어질 준비를 한다.</p> <p>넷째박에 왼발을 구부리며 오른발을 들고 양손은 왼쪽 어깨에 짊어진다.</p> <p>② ①을 반복한다.</p> 

6	테왁메고 뛰어 돌아오기	굿거리 2장단	<p>① 왼쪽 어깨에 테왁을 짊어진 모습으로 1박 1걸음으로 시계도는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어깨를 좌우로 움직이며 8박으로 한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다음 원심을 향해 선다.</p> <div data-bbox="686 600 810 739"> </div> <div data-bbox="981 571 1125 772"> </div>
---	--------------------	------------	---

VI. 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해녀노래’ 辭說에 드러난 해녀의 경제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해녀의 위치를 재조명하며, 해민정신을 계승하고 ‘해녀노래’를 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녀노래’에 따른 춤사위 지도 자료를 구안 적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해녀의 위치, 해녀노래 전승 양상, 그리고 이미 채록되어 자료집에 실려있는 해녀작업의 題材를 ‘잠수작업, 해산물채취, 잠수목적’으로 분류하여 제주해녀의 경제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성산읍 온평리 해녀들과 면담을 통하여 ‘해녀노래’ 구연 상황과 물질 수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해녀노래’ 전승 방안으로 ‘해녀노래’에 따른 춤사위를 구안하여 도식화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해녀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 말 현재 제주도에 6,068명의 해녀가 있으나, 1970년 23,930명에 비하면 25%에 불과하다. 또한 1994년 해녀 구성비에서는 50세 이상의 해녀가 64%를 차지하며 국민학교 졸업자가 85%로 학력이 높을수록 해녀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해녀의 고령화 현상은 바로 ‘해녀노래’의 전승위기와 직결된다.

둘째, 제주도에 세계적 관심의 대상인 해녀가 밀집되어 있고, 해녀들은 생동감 넘치는 ‘해녀노래’를 부른다. 본래적인 ‘해녀노래’는 이 세상에서 제주도에만 전해지면서 ‘맷돌·방아노래’와 함께 제주도 민요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해녀노래’는 노를 젓는 동작과 밀착된 채 구연됨으로써 작업에 이바지하는 기능이 뚜렷하다. 그러나 오늘날 노를 젓는 작업과 함께 불리는 ‘해녀노래’는 해녀작업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연적 전승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해녀노래’ 辭說은 ① 해녀작업 출발의 노래(16편), ② 해녀작업의 노래(38편), ③ 해녀출가의 노래(64편), ④ 해녀출가 생활의 노래(19편), ⑤ 사랑노래(37편), ⑥ 해녀들의 여정(25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辭說의 題材에는 해녀들이 신명을 걸고 생업에 임하는 숙연함과 불굴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특히 해

녀작업의 노래에는 해녀들이 해녀기구를 챙기고 수심깊이 무자맥질하는 모습, 억척스럽게 벌어들인 소득으로써 궁핍한 생계에 이바지하는 잔잔한 환희도 드러난다.

넷째, ‘해녀노래’ 辭說 199편 중 해녀작업의 노래 38편을 ① 잠수작업에 드러난 해녀의 생활상태, ② 해산물 채취에 따른 해녀의 작업도구, ③ 작업목적에 드러난 해녀의 경제의식을 題材별로 분석하였는데, 잠수작업 題材에는 목숨걸고 잠수작업에 온 힘을 쏟는 해녀들의 숭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특히 해산물 채취 辭說에 드러난 해산물 빈도수를 살펴보면 전복(28.9%), 소라(21%), 미역(21%), 홍합·대합(13.2%), 천추(10.6%), 진주(5.3%) 순으로 나타나서 전복, 미역, 소라는 해녀들의 주요 생계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辭說에는 빗창, 호미, 굴쟁이, 테왁 등 해산물을 캐는 주요 작업도구가 드러나며, 고무옷 착용과 함께 해녀들의 잠수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면제 물옷을 입어야 한다는 해녀들의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잠수목적 題材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지역경제와 가정경제에 기여한 경제활동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 제주도 총 수출고 중 해녀가 어획한 어획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5년에 44%이었던 것이 1982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76%를 차지하였고, 1985년에는 62.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어종별로 가장 많은 수출고를 기록한 품목은 소라인데 1975년 수출고 2,148千\$로서 해녀에 의한 주 어획물 수출고에서의 비중은 53.1%였으나 1984년에는 11,410千\$로 82.6%를 기록함으로써 제주도 총수출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를 차지하여 수출전략 품목이 되었다. 결국 제주도의 해외 수출은 해녀의 어획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소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국 어선비사용 어업가구의 가계비 충족도 61.6%와 비교해보면 제주도 해녀의 가계비 충족도는 훨씬 높은 80.1%로서 가계비 지출에 해녀 수입이 80%이상이 충당되고 있었다.

다섯째, 오늘날 제주의 ‘해녀노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해녀들에 의해서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활기찬 본래의 노래이고, 둘째는 편곡되어 불리는 무대 위의 ‘해녀노래’이다. 여기에서 무대 위의 ‘해녀노래’는 학생들이 즐겨 부르며 의식행사 때 자주 구연되나 본래의 ‘해녀노래’는 이미 해녀작업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연적 전승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해녀노래’의 전승자는 50대 이상의 해녀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녀노래’의 철저한 수집과 교육 현장에서 본래의 역동적인 ‘해녀노래’를 지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어업요 중에서 가장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해녀 노젓는 소리’와 ‘멸치 후리는 소리’에 대한 악보와 辭說 내용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본래의 ‘해녀노래’는 노래 자체가 격렬하고 숨가쁘기 때문에 오래 부를 수가 없어서 ‘해녀노래’ 辭說한 음보를 앞소리꾼이 부를 때 뒷소리꾼 여럿이 ‘이여싸’ 등의 후렴을 부르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춤사위를 가미하여 ‘해녀노래’를 생동감 있게 구연할 수 있도록 ‘해녀노래’에 따른 춤사위를 작업의 소재로 엮어 도식화하여 ‘해녀노래’ 구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는데, ‘해녀노래’의 전승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해녀들은 고무옷 착용으로 두통, 피부병, 위장병 등의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 잠수 건강 진단과 타직종별 의료 보험 조합과 같은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해녀수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政策樹立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수출 품목 중 소라, 톳 등의 어종은 대일 수출에만 의존해 왔지만,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다품종 상품 개발로 국제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특히 소비시장의 한정성과 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량 증대보다는 가공식품의 개발과 해초를 사용한 공업원료의 생산 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관계당국의 정책추진이 필요하겠다.

셋째, 해녀의 고령화 현상과 해녀수의 감소는 바로 ‘해녀노래’의 전승위기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해녀노래’에 대한 녹화·녹음·채보·辭說채록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해녀노래’를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교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韓國文獻

〈單行本〉

- 康大元(1973), 『海女研究』, 한진문화사.
- 고정종(1930), 『제주도편람』, 영주서림.
- 김경숙(1986), 『민요의 인식과 개념』, 집문당.
- 金榮敦(1965), 『濟州道民謠研究上』, 一潮閣.
- _____ (1983), 『濟州道民謠研究』, 조약돌.
- 金宗河(1988), 『민속놀이』, 대한체육회여성체육위원회.
- 농림부(1996), 『농림수산통계연보』, 농림부.
- 宋成大(1996), 『濟州人의 海民精神』, 도서출판 제주문화.
- 장덕순 외(1971), 『口碑文學概說』, 일조각.
- 전경옥(1987), 『민요연구의 현황과 분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제주도(1983), 『제주도지』, 제주도.
- _____ (1996), 『제주의 해녀』, 제주도.
- _____ (1996), 『수산현황』, 제주도.
- 趙永培(1991), 『濟州道 民俗音樂』, 신아문화사.
-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 _____ (1995), 『제주도민요지도곡집』, 제주도교육청.
- 진성기(1979), 『제주민속의 멋』, 열화당.
- 한국교육개발원(1974), 『韓國人像의 探究』, 교육출판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 『나라와 주인』, 고려원.
- 한림화 외(1987),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한길사.

〈論文〉

- 김영돈(1983), “濟州道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知愚邊時敏博士 回甲紀念論文集』, 博英社.
- _____(1985), “이여도와 제주민요,” 『濟研』, 第7輯, 濟州道問題 研究會.
- _____(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 김정숙(1989), “濟州道海女服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성구(1986), “濟州道 서우젯소리 연구,”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 校 教育大學院.
- 梁英子(1992), “濟州民謠 시집살이 노래 研究,” 『탐라문화』, 제12 호, 탐라문화연구소.
- 이경남(1968), “제주도 해녀의 노동생산성 실태,” 『제주도』, 제34 호, 제주도.
- 이기욱(1986), “도서와 도서민,”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도연 구회.
- 鄭忠浪(1963), “濟州道の 女性美,” 『제주도』, 7호, 제주도.
- 左惠景(1994), “제주도 민요에 대한 文獻 解題(I),” 『民謠論集』, 제주문화.
- 許 椿(1996), “說話에 나타난 濟州女性考,” 『耽羅文化』, 第16號,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 玄容駿(1970), “제주도민의 검소생활,” 『제주도』, 43호, 제주도.
- 玄平孝 외(1980), “耽羅精神 研究,” 『濟州大論文集』, 第11輯.

〈Abstract〉

**Henyo's economic activity shown through an account
of their songs and
the tradition of passing of Henyonore**

Yang, Soon-Ja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Yong-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activity shown through the account of 'Henyonore' and to illuminate the position of Cheju's Henyo, furthermore it will reveal and interpret the dancing of 'Henyonore' as a tradition of 'Henyonore'.

I classified the position of Cheju Henyo, the inheritance examines of 'Henyonore' and the theme of 'Henyo's work, which has already been divided into diving, seafood harvesting and the purpose of diving' I have analyzed the economic activity of Cheju's Henyo. Through interviews with Henyo in Onpygli Songsanu I analyzed the aspect of reciting on 'Henyonore' and the income from the diving work. I translated and summarized the dancing motion which goes with 'Henyonore', as inherited tradition of 'Henyonore', as follow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First, there were 6,068 Henyo in 1994, which is only 25% of the 23,930 there were in 1970. The percentage of Henyo over 50 years old is 64% of those 85% finished only primary school. This shows that the higher educated people rarely decide on Henyo as an occupation. That Henyo are getting older and their numbers are decreasing linked directly with the inheritance crisis of 'Henyonore'.

Therefore there should be a policy to revers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Henyo.

Secondly, 'Henyonore' has been transmitted only in Cheju, and is an important componen of Cheju' s falk songs with 'Maetdol · Banganore'. 'Henyonore' is recited with the movements of rowing so that it is functional during diving work, but 'Henyonore' has became detached from diving work today so that it has become difficult to tra. A recital plan needed for 'Henyonore'. Thirdly, the account of 'Henyonore' is compose of: ① start up work songs Henyo(16parts), ② songs of Henyo' s work(38parts), ③ songs of the life of Henyo' s journeys(64parts), ④ songs of the life of Henyo' s traveling(19parts), ⑤ songs of love(37parts), ⑥ the weary thoughts of Henyo(25parts), We need to inspire Seamanship to our students through 'Henyonore', because the theme of 'Henyonore' contains Henyo' s reserance and indomitable dedication to their occupation.

Fourthly, the sublime life an spirit of labour of Henyo are shown in account 38 of 'Henyonore', Diving work achieved 72.5% of the local export in 1983 and 28% in 1995, which is to say that it played a major role in the local economy. They are also helping their household economies through diving work and supporting 80% of their family living expenses, which is very inspiring.

Finally, the original 'Henyonore' became detached from Henyo' s

diving work, so there was no natural transmission of 'Henyonore'. We need to record both audio and visual accounts of 'Henyonore', as well as record the score to pass on to posterity, because the Henyo who transmit 'Henyonore' are getting over in their 50's. In addition, we should hurry to organize a guidance plan to transmit Seamanship and 'Henyonore' in the schools. Cheju has already summarized the music of 'Henyonore' and 'Moyl Hi Hoorinnun Sori' as well as the dancing motions which goes with the but we still need the support of the Education Authority and the efforts of teachers to continue an organized teaching of our proud tradition.